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9월 26일)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수계·기부 비대면 언택트 불교 '성큼'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본사 국장단회의 비대면 진행
대불련 온라인 합동 수계법회
조계사는 언택드 기부도 추진
포교원 화상회의 매뉴얼 배포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불교 안으로 성큼 다가왔다. 종무행정 회의부터 전법포교 현장, 기부까지 전분야에서의 확산이 눈에 띈다.

먼저 종무행정에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성공)는 11월 3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부터 연기해온 전국 교구본사 사회국장단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사회부는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불교사회봉사단 조직에 대해 논의했으며 10개 지역을 선정, 교구본사 연대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회부의 화상회의는 7월 7일 조계종 포교원의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단 회의의 온라인 진행에 이은 것으로 현재 조계종은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사찰 스님들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사찰과 신행현장에서도 퍼져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무각)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윤정은)는 10월 31일 '제2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수계법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열린 수계법회는 30여 대학 70여 청년대학생 불자들이 계를 받았는데 법회에는 전계사인 공생선원장 무각 스님 외 지도법사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과 수계자 대표 3명만 참석했다. 온라인 참여자들은 화상회의로 동참했으며 연비를 대신해 연꽃모양 타투스티커를 붙였다.

이처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자 사찰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1월 5일 조계사 백주년기념관 내 관음전에서 주지 지현 스님, 이명구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기부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조계사 전용 기부 사이트를 개발해 11월 12일 공개한다.

개발되는 조계사 기부사이트에서는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없이 휴대폰 인증 후 바로 기부할 수 있다. 특히 URL과 QR코드로 조계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에 활용 가능하다.

김광민 신한은행 디지털사업부 부부장은 "기부 사이트 개발은 조계사가 종교계 최초"라며 "불자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실현과 사회공헌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계사는 이번 사이트 운영과 함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경내에 신행활동 정보와 기도 동참, 기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터치 키오스크(무인단말기)도 설치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언택트 비대면 사이트나 기기 활용은 단순히 시대 상황에 따른 임시방편을 넘어 새로운 사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조계사에 오시기 힘든 분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하고, 경내에서는 무인장치로 많은 이들이 쉽게 사찰 정보를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문화가 불교 안팎으로 확산되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비대면 프로그램 활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배포했다.

웹자료와 동영상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매뉴얼로 다중송출 방식으로는 '줌(zoom)' '구글 미트(Google Meet)', 단일송출 방식으로는 '유튜브 라이브스트리밍(YouTube)' '네이버밴드 라이브방송' '카카오톡 라이브톡'이 안내됐다. 현재 자료는 조계종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조계종 포교원'에서 볼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비대면 방식 법회나 신행활동을 하려고 해도 아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불자들이 많다. 키오스크, 기부사이트, 프로그램 활용에 있어 사찰과 언론을 활용해 불자들에게 친절히 안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 진행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비대면 방식의 불교계 활동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기존 대면 방식과 더불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할 것"이라며 "온라인 전법, 포교 방편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풍 고운 만추의 길상사 부처님 말씀에서 한 치도 어긋남 없는 오늘을 맞는다. 서늘해진 바람을 따라 나뭇잎은 붉어지고 짧아진 햇살 속에서 하늘은 깊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힘겨운 가을을 맞는다. 단풍이 짙어가고 하늘이 깊어가는 이유처럼 코로나19도 부처님 말씀 어딘가에 그 이유가 있으리라. 법정 스님과 깊은 인연을 간직한 서울 길상사도 가을이 깊다. 10년째 법정 스님의 발길을 볼 수 없는 오늘, 선지식의 한 말씀이 그리워지는 가을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계종 후반기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중앙종회 정기회서 만장일치로
부의장에 각림 · 만당스님 선임
종정 감사로 휴회… 12일 속개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4선 중앙종회의원 정문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부의장에는 3선 중앙종회의원인 만당 · 각림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9회 정기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원 구성 등을 진행했다.

중앙종회는 후반기 의장에 4선 의원 정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수석부의장으로는 3선 의원 각림 스님이, 차석부의장에는 3선 의원 만당 스님이 각각 선출했다. 후반기 중앙종회 사무처장으로는 재선 의원 우봉 스님이 추천돼 만장일치로 임명 동의됐다.

선출 직후 후반기 의장 정문 스님은 "중앙종회는 종헌종법을 수호하는 입법기구이자 종도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중추적 역할을 하며 종단 발전을 견인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다. 종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활동과 종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후반기 상임분과위원 배정과 분과위원장 선출도 진행했다. 또한 인사심의위원장에는 태효 스님이 선임됐으며, 위원은 새로 배정된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키로 했다.

한편,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했으며, 11월 12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속개된 종회에서는 불기 2556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을 비롯해 △종법 제개정의 건 △종무보고 △종책질의 △원로의원 추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창립 30돌 연꽃마을, 신사옥 시대 '활짝'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창립자이자 불교 노인복지 선구자였던 故 덕산당 각현 대종사의 원력을 이어 불교복지 미래를 새롭게 견인하기 위한 도약을 시작한다. 그 일환으로 법인 역사상 첫 사옥을 마련하는 한편, 70여 개 산하시설과 2400여 직원을 통솔하는 조직구조 개편 및 체계화, 창립자인 각현 대종사의 원력을 재조명하는 계승사업 등을 동시에 일궈내며 향후 불교복지 30년을 열어갈 새로운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연꽃마을(이사장 원상)은 11월 19일 연꽃마을 법인 사옥 준공식을 봉행한다. 연꽃마을 창립 이래 법인 사옥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옥에는 법인 사무국 뿐 아니라 각현 대종사 추모기념관과 연화사 법당이 자리한다. 무엇보다 사옥은 연꽃마을이 태동한 곳이자 첫 시설인 용인노인요양원이 위치한 용인구 처인면에 자리해 상징적인 의미도 적지 않다.

이날 법회에서는 창립자인 덕산당 각현 대종사를 추모하고 생전 불교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숭고한 원력을 기리는 법석도 마련된다. 〈관련인터뷰 A3〉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개신교계 '수진사 방화' 릴레이 참회

종평위 '훼불' 비판에 기독교교회協 이례적 사과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과 관련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가 "더 이상 개신교계에 의해 반복돼 온 훼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가운데, 불교계를 향한 개신교계의 공식 사과행보가 이어져 주목된다. 그동안 훼불과 관련해 일부 목사 등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사례는 있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주류 개신교계가 일부 신자들의 왜곡된 종교관을 인정하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진사 방화 사태가 지난 세월 수없이 반복돼 온 개신교계 신자 훼불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고 진정한 종교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이하 교회협의회)는 11월 3일 '남양주시 수진사 방화사건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불교계를 향한 공식 사과는 물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종교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그 상징을 훼손하는 행동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웃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여 가해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떠한 신앙도 이웃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깨뜨리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종교의 다름을 떠나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회협의회는 "종교적 상징에 대한 방화나 훼손 사건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한 것이란 사실에 근거하여 극단적으로 퇴행하는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며 회개한다"며 "한국 기독교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조건 없이 열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표현행태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본지와의 메일 인터뷰를 통해 수진사 방화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복구를 위한 모금활동을 공식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독교 광신도의 고의적인 방화로 잿더미가 된 수진사 산신각.

개신교단체 · 목사들 내부자성
평화나무, 복구 모금운동 계획
"종교 간 평화 새 전환점 되나"

김용민 이사장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예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은 불자님이셨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예수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합당한 모범을 보인 이들 역시 불자님들이었다"며 "기독교는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대자대비, 즉 극진한 사랑과 용서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훼불 사건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이자 테러"라며 "이제는 방관하지 않겠다.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나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그 첫발로 김 이사장은 "개신교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서울시에 기부금모집 등록을 마치는 대로 범기독교인을 상대로 수진사 복구를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겠다"며 "또 훼불범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김천 개운사 방화사건 당시 복구모금을 펼쳤고, 이후 서울기독대 교수직에서 파면돼 고충을 겪고 있는 손원영 교수 역시 10월 28일 SNS에 '불자분들에게 용서를 구함' 제하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손 교수는 11월 3일 재차 호소문을 발표하고 특히 목사와 신학자들에게 "교인들과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잘못 교육한 죄, 이웃종교인과 어떻게 더불어 잘 살아야 할지 제대로 안 가르친 죄, 심지어 이웃종교인을 폄훼하고 모욕하도록 은연중 강요한 죄를 참회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라도 더 늦기전에 함께 종교평화를 향해 나아가자"며 "이웃종교인은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벗이요 형제이자 자매"라고 강조했다.

개신교계의 잇따른 사과입장 표명과 관련, 이제는 개신교 내부적으로 교리의 전파 과정에서의 배타성을 인정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그동안 반복돼 온 개신교계 신자의 훼불 사건에 대해 개신교계가 '일부 신자의 행위'라는 인식에서 한 발 나아가 공식적인 참회 입장을 드러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진사 방화사건이 개신교계 내부의 인식 변화는 물론, 왜곡된 종교관에 의한 훼불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번 사례가 종교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종평위는 11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되는 사찰 방화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종평위가 성명서에서 특정종교계를 직접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일침을 둔 것은 이례적이다. 종평위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개신교인에 인한 방화 피해는 그동안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 여수 향일암 같은 천년고찰은 물론 다수의 사찰에서 발생해 왔다"며 "불교계는 그동안 사회 안정과 종교 평화를 위해 한없는 연민과 자비심으로 인내해 왔지만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앞으로 훼불 사건을 용인하지 않음은 물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진료소 건립 '청신호'

백천재단 3일 기금 3억원 쾌척
사찰 內 지역민 의료공간 마련
전국비구니회, 운영 동참 의사

조계종이 추진 중인 백만원력 결집불사 핵심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백천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은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3억 원을 전달했다. 해당 기금은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경내에 진료소를 건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백천문화재단은 11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분황사 진료소 건립기금 3억 원을 전달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는 부처님 정각(正覺) 성지에 한국 사찰이 낙후돼 성지 순례자들을 수용할 수 없어 한국 전통양식의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원행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원행 스님의 발원에 부산의 설매 · 연취 두 화주자가 선뜻 거금 50억 원을 쾌척했고, 백천문화재단에서 진료소 건립 기금을 기부함에 따라 불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사찰 분황사의 조성 위치는 인도 물라상가의 부다가야 보유부지로 건축면적은 총 1,302.88㎡, 연면적은 총 1,741.56㎡다. 부지에는 한국 전통 건축양식의 건물 3동이 들어선다. 대표 건물인 대웅전은 단층으로 면적 433.84㎡, 연면적 262.26㎡으로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을 모티브로 설계됐다. 한국 사찰 건축물 중 보기 드문 회랑식 법당으로 설계한 것은 태양고도가 높아 일사량이 강하고 고온다습한 인도 기후와 주변환경을 고려해 이뤄졌다.

부다가야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공간인 보건소는 진료대기를 위한 넓은 로비와 복도를 중심으로 유동적 진료공간이 만들어지는 데 설계의 주안점을 뒀다. 규모는 연면적 514.85㎡으로 1층에는 진료소와 환자 대기를 위한 로비가, 2층에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2인 숙소 5개실이 들어선다.

기금 전달 직후 원행 스님은 "부처님 깨달음 성지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 사찰을 짓기로 원력을 세웠고, 사찰 내에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소를 병설로 운영키로 했다"면서 "백천문화재단에서 진료소 건립을 위해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도성 백천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조명하 이사장이 직접 기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참여하지 못했다. 양해바란다"면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큰 불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금 전달식에 배석한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을 부다가야 분황사 진료소에 파견해 의료진을 돕도록 하겠다"고 부다가야 분황사 진료소 운영에 참여할 뜻을 내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백천문화재단은 이날 구족계 수지 장삼 지원금 2790만원을 종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교육원, 전법교화 승가결사체 지원

11월 20일까지 신청양식 제출
승려연수 50점 · 1천만원 지원
장학위원회, 장학승 지원 공고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이 승가결사체의 2021년도 전법교화활동 지원을 위해 연수인증 및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0일까지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발될 경우 참여스님에 대해 당해 연도 연수점수 50점을 부과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단, 해당 스님이 연 2회 이상 회의를 하고 연 6회 이상 전법교화활동을 했음을 인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승가결사체에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승가결사체는 스님 4명 이상이 자율적으로 전법교화를 목적으로 구성, 활동하는 비영리 임의단체다.

교육원이 인정하는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은 △어린이 · 청소년 · 교도소 재소자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와 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호스피스 ·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인권 · 노동 · 환경 · 통일 · 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참선 · 선무도 · 지하 등 생활지도 활동 등이 대표적이며, 이에 준하는 활동이면 연수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조계종 홈페이지 승려연수 인증 신청서를 비롯해 단체현황과 회원명부, 전법교화활동 계획서 등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교육원 연수팀에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조계종 홈페이지와 개별 통보로 발표된다. 02)2011-1817

한편 조계종 장학위원회도 종단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승을 선발, 지원한다. 종단 장학승은 조계종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가운데, 국내 또는 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 ·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스님들, 또 조계종법에 의해 설립된 사찰승가대학원의 전문연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02)2011-1818

송지희 기자



“창립정신이 정체성…미래 초석 다지겠다”

연꽃마을 제4대 이사장 원상 스님



창립자 각현 대종사 입적 후
후원자 수 감소 등 어려움도
부도탑 조성 등 정체성 확립
재정 구조 대대적 개편 이뤄
“힘 보태준 모든 분들에 감사”

용인=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원상 스님<사진>이 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9년 3월, 연꽃마을은 전환의 기로에 서 있었다. 창립자인 덕산당 각현 대종사 입적 후 5년간 누적된 어려움이 법인을 옭죄고 있었다. 꼬박 한달 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법인 현안과 재정을 들여다 봤지만, 타개책은 묘연했다. 쇠퇴의 기로에서 스님은 ‘수좌답게’ 결단했다. 현상을 제거한 근본자리를 직시했고 대대적인 혁신, 즉 정면승부를 선택했다. 스님이 꼽은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창립정신의 회복과 재정구조 혁신을 통한 내실 강화였다.

우선 창립정신의 회복을 위해 덕산당 각현 스님을 추모하고 조명하기 위한 불사를 시작했다. 불사는 오직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뤄졌다. 조계종 원로의원 미룡 월탄 대종사 등 문중 스님들을 비롯해 각현 스님과 인연이 있던 여러 스님들이 마음을 보탰다. 부도탑은 지난해 말 연꽃마을이 태동한 용인노인요양원 인근 부지에 조성됐으며, 부도탑 주변을 덕산공원으로 조성해 봉헌한다는 계획이다.



11월 19일 준공식이 예정된 연꽃마을 법인사옥.

원상 스님은 “현재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근본적으로 창립정신을 계승하지 않고서는 연꽃마을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부도탑은 은사스님을 기리는 동시에, 생전 드높았던 사회복지 원력과 창립정신, 도전의식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부도탑과 덕산공원은 앞으로 연꽃마을의 정체성과 구심점이 되어 연꽃마을의 미래를 열어갈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도탑과 함께 추진된 또 다른 불사는 법인 사옥건립이다. 부도탑이 연꽃마을의 정신적인 축이라면, 사옥건립은 구조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무엇보다 17년간 월 임대 형태로 운영됐던 법인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은 가장 큰 지출을 없애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다.

원상 스님은 “쉽지 않은 계획이었지만 힘을 보태준 문중과 이사회, 임원과 시설장 등 모든 구성원 덕분에 숙원과제이던 첫 사옥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특히 스님은 산하시설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님은 “연꽃마을의 자랑은 바로 사람이다. 내부승진을 통해 은사 스님과 함께 불교복지를 일궈온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도 법인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법인 사옥에는 사무국 공간과 각현 대종사 기념관, 교육관, 법당 ‘연화사’가 자리한다. 특히 연화사는 부도탑과 함께 연꽃마을을 상징하는 구심점이자, 내부 법당을 넘어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사찰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법인 이사장이자 연화사 주지 소임을 맡은 원상 스님은 올 동안거에 이 곳에서 100일 기도에 입재한다. 이를 통해 연꽃마을의 미래 30년을 위한 초석 마련을 화두삼아, 은사 스님의 원력과 그 삶의 여적을 찬찬히 돌아본다는 계획이다.

“은사 스님의 입적 당시 개인 통장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전부 베트남 연꽃마을로 송금했기 때문이죠. 한평생 연꽃마을을 위해, 또 불교사회복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스님의 그 원력이야말로 앞으로 연꽃마을 100년을 이끌어 갈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공공 치유 템플스테이 뜬다

불교문화사업단, 11월 30일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로 지친 사회를 위로하는 ‘코로나19 극복 치유와 힐링 특별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해당 기간 중 전국 110개 사찰에서는 1박2일 템플스테이를 2만원에 즐길 수 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구호협력기구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가 10월 23일 서울 진관사에서 코로나19로 지친 공중보건 인력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공익 활용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템플스테이 운영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그 가치도 함께 알려갈 예정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이 한국관광학회와 11월 16일 공동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의료와 관광, 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템플스테이의 공익 가치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이제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식방편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공익 성격의 템플스테이 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행선 · 불교사상 접점 모색한다

대행선연구원, 11월 21일 제4회 학술대회 개최

법화 · 정토 등과의 연결 고찰
한마음선원 유튜브로 생중계

붓다는 맨발로 세상을 유행하며 대자유의 삶을 몸소 실천해 증명했고, 그의 가르침은 화엄 · 유식 · 법화 · 정토 · 밀교 · 선 등 여러 이름으로 집약돼 전해졌다. ‘나는 누구인가’는 근본 의문 참구하다 자성발로한 대행 선사는 생활을 떠나 따로 불법을 구하지 말라 하였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마음은 하나라고 했다.

생활 속 불교사상과 대행 스님이 남긴 대자유의 삶을 참구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11월 21일 ‘불교사상과 대행선사상’을 주제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오전 10시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40분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의 사회로 2부 학술발표가 진행된다. 학술발표서는 이명북 고려대 교수가 ‘〈법화경〉에서 바라본 대행 선사상’을 발표하며 이기운 동국대 교수가 논평한다. 또 조준호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가 ‘정토사상의 본질과 대행 스님의 정토관’을 주제로 발표하며 문을식 동국대 교수가 논평한다.

학술대회는 점심공양 후 오후 1시에 3부 학술발표로 이어진다. 안성두 서울대 교수의 사회 아래 안환기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가 ‘유식사상과 대행선 · 자성신과 한마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며 김성철 금강대 교수가 논평한다. 이어 정성준 위덕대 교수가 ‘대행선과 총지선의 성립배경 고찰 - 〈무외삼장선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김영덕 위덕대 교수가 논평에 나선다.

이어 최유진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조사선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행의 선사상’ 발표와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의 논평이 진행된다. 끝으로 권탄준 대행선연구원 원장의 ‘화엄사상과 대행선 사상’ 발표와 박보람 충북대 교수의 논평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는 김용표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체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는 토론광장이 열린다. 대행선연구원 측은 “코로나로 인한 대위기에 생활과 불법이 둘 아닌 도리가 절실하다”며 “대자유의 길을 고찰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행선연구원 제4회 학술대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을 통해 생중계 된다.

노덕현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11월 5일 정의당 대표, 수진사 방화 언급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지 말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노위)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1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범종과 목탁으로 행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진에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 국가인권위원 퇴휴 스님,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사노위는 이날 처음으로 모형 범종을 차량에 싣고 행진을 외호했으며,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행렬의 선두에서 목탁을 치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몽 스님은 “불교에서 범종과 목탁은 모든 만물을 깨워 밝힌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종교를 초월해 범종과 목탁의 울림이 모든 차별과 소외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염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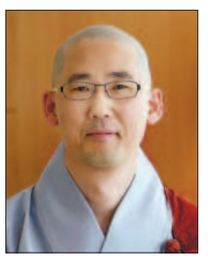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 퇴휴 스님은 “평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헌법에도 명시된 권리이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이토록 호소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며 “우리사회의 모든 차별과 증오, 혐오가 사라지는 계기로서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현실화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11월 5일 진행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행진.

송지희 기자

제17회 대원상 대상에 일묵스님 · 거룩한 만남



대한불교진흥원은 11월 4일 제17회 대원상 수상자로 출가부문 대상에 조계종 제따와나선원장 일묵 스님<사진>을, 재가부문 대상에 BBS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묵 스님은 2009년부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현대적 방법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선원을 열어 불자들의 수행지도에 매진해 왔다. 특히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 수행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재가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BBS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은 1991년부터 이어진 이웃돕기 모금 프로그램으로 동체대비 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대원상은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인 고(故)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아래 모범적으로 정진해온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준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2천만원, 특별상 1천만원, 장려상은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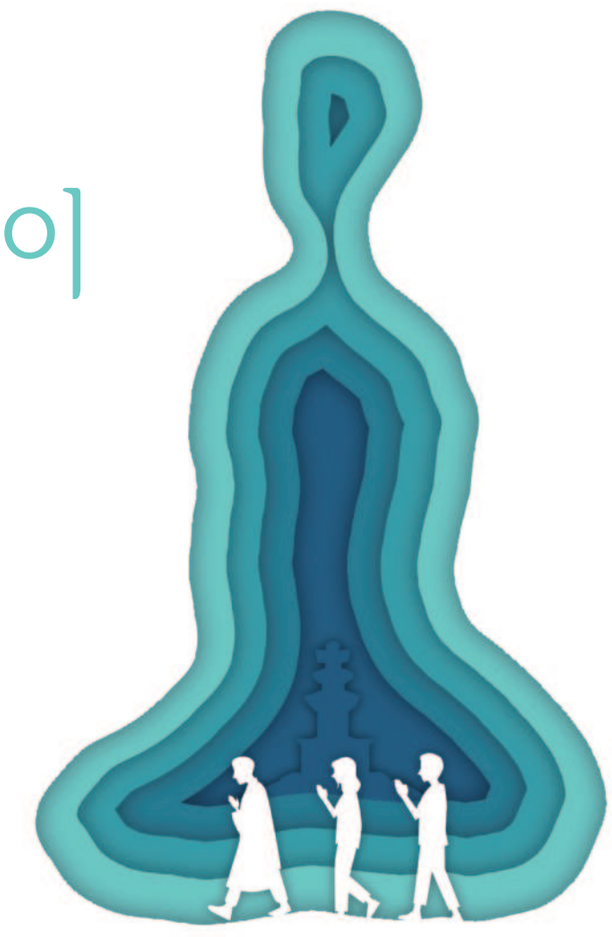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템플스테이 TEMPLESTAY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템플스테이

Templestay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연구 세미나 온라인



BTN 유튜브

2020.11.16 |월| 2시

방송 BTN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BTNWORLD)
주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관 한국관광학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발제 1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 : 성과와 과제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전병길 교수

발제 2 템플스테이의 경제적 가치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관광학과 이충기 교수

발제 3 템플스테이의 심신치유 가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

토론자 국립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심원섭 교수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이원석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 오상훈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도심포교 10년, 이웃사랑 실천도량 되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전경. 올해로 창건 10주년을 맞은 국제선센터는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 국제선센터 11월 15일 개원 10주년 맞아

불교 · 전통문화 홍보대표 도량
10년에 1만 3천여 외국인 방문
도심 사찰로 사회 공헌에 앞장
이주 · 탈북민 법회 · 휴식제공
자살예방 등 시대의 아픔 치유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세운 서울 서남부 포교거점도량인 서울 국제선센터가 11월 15일 오전 11시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센터 2층 큰법당서 열리는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육법공양과 헌화 등 불교의식과 함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치사와 주지 법원 스님의 봉행사, 축하떡 커팅, 사부대중이 함께 보현행원 합송 및 양천구청에 자비쌀 전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0년 11월 15일 개원한 국제선센터는 현재 '황룡사 9층 목탑'을 모티브로 도심 한가운데 지하 3층, 지상 7층의 장엄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지금의 국제선센터가 있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90년 종교부지를 확보한 조계사 신도들의 원력이 밑바탕이 됐지만 불교계에서도 흔치 않는 대형불사였기에 불사부터 운영 안정화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10년 간 노력 끝에 현재는 서울 서남권 기도와 포교 중심도량이자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대표사찰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선센터는 특히 지역 주민은 물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왔다.

국제선센터 금차선원(今此禪院)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선수행을 하는 선원으로 특화돼 운영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전문화된 수행 지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또 템플스테이를 통해 인종과 국적이 다른 내 · 외국인들이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선센터 지하에 위치한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에서는 외국인 초청 사찰음식 교육과 지역주민 강좌 등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금까지 국제선센터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약 1만3천여 명, 내국인은 3만8천여 명에 달하며 국제적인 운영으로 최근에는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로부터 마이스 사업의 독특한 가치를 지닌 '유니크 베뉴(Unique Vanue)'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제선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새터민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과 함께하며 모두가 부처님의 품 안에서 어우러지는 기회도 제공한다. 2013년 10월부터는 매달 1차례씩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회도 열고 있으며 이주민 250만 시대를 맞아 2014년 베트남 이주민 불자회에 이어 2017년에는 방글라데시 불자회 발족도 뒷받침했다.

더 나아가 국제선센터는 불교의 자비사상과 연기사상의 가르침대로 사회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에게 회향하여 사회적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명절때마다 국제선센터가 진행하는 새터민 합동차례와 위로행사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불자대중과 함께 보내며 그리움을 달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이탈주민 100여 명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제선센터 청소년 봉사단(Prajna Youth Suppoter's Organization, 이하 PYSO)을 구성하고 청년불자들의 사회공헌도 이끌고 있다. PYSO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불자들의 의료상담 및 간단한 건강검진 등을 한다.

또 최근 사찰 본연으로서의 기도도량 역할도 강화해가고 있다. 큰법당 대적광전에서는 기도수행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불교대학의 기본 · 전문과정을 통해 도시인들에게 불자로의 길을 알려주고 있다. 사찰과 지역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천도재, 자살방지 불살생 법회와 같이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전법포교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은 "종단의 높은 관심 속에 문을 연 국제선센터는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으로 기도와 포교 거점 도량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기도 수행과 함께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충족 기대에 부응하고, 훌륭한 불교문화유산이 새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제선센터는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개원 10주년을 맞아 전국의 사찰과 폐사지 등의 마애불을 한자리에 모은 사진전 '마애불 천년의 미소' 도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

제4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붓다는 맨발로 세상을 유행하며 대자유의 삶을 몸소 실천해 증명하였고, 그의 가르침은 화엄·유식·법화·정토·밀교·선, 여러 이름으로 집약되어 전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본에 대한 의문을 참구하다 자성발로한 대행선사는 생활을 떠나 따로 불법을 구하지 말라 하였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마음은 하나라 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활과 불법이 둘 아닌 도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붓다가 가리킨 대자유의 길을 여섯 갈래로 고찰하는 대행선연구원의 '불교사상과 대행선사상'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불교사상과 대행선사상

■ 일시 : 2020. 11. 21(토) 10:00 - 17:1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

1부 / 개회식(10:00 ~ 10:30)
· 개회식

2부 / 오전 학술발표(10:40 ~ 12:00)
좌장 : 차차석교수(동방문화대학원대)
· 발표: 이병욱교수(고려대)
· 논제: 『법화경』에서 바라본 대행 선사상
· 논평: 이기운교수(동국대)

· 발표: 조준호교수(동방문화대학원대)
· 논제: 정토사상의 본질과 대행스님의 정토관
· 논평: 문을식교수(동국대)

2020년 11월 21일(토)
(10:00 ~ 17:10)
YouTube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3부 / 오후 학술발표(13:00 ~ 15:50)
좌장 : 안성두교수(서울대)
· 발표: 안환기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
· 논제: 유식사상과 대행선
–'자성신'과 '한마음'을 중심으로–
· 논평: 김성철교수(금강대)

· 발표: 정성준교수(위덕대)
· 논제: 대행선과 총지선의 성립배경 고찰
–『무외삼장선요』를 중심으로–
· 논평: 김영덕교수(위덕대)

좌장 : 최유진교수(경남대)
· 발표: 김방룡교수(충남대)
· 논제: 조사선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행의 선사상
· 논평: 혜원스님(동국대)

· 발표: 권탄준교수(대행선연구원 원장)
· 논제: 화엄사상과 대행선사상
· 논평: 박보람교수(충북대)

토론광장(16:00 ~ 17:00)
좌장 : 김용표교수

· 폐회식(17:00 ~ 17:10)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Tel : 031)470-3276, 3277 E-mail : ds7788@hanmaum.org

백용성 창립 '대각교' 의식집 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11월 6일 등록예고
한글 의식 수록… 가치 높아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대각교의식〉.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백용성 스님이 창립한 '대각교'의 의식집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을 비롯한 전남대 용봉관, 경남도립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군산 둔율동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 등 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또한, 문화재청은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과 〈독립신문〉 상해판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번 문화재로 등록예고된 〈대각교의식〉은 백용성 스님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대각교'를 창립하고 저술한 불교의식집이다. 의식집에는 일제강점기 불교계에서 행해지던 예불 · 향례 · 혼례 · 상례 등 각종 의식들을 실용적으로 간소화하여 정리됐고, 왕생가 · 권세가 등 찬불가 7편이 수록돼 있다.

문화재청은 "불교 의식문을 한글로 보급해 일제강점기 불교의 대중화와 개혁을 꾀하고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 · 문화적 자료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대각교의식〉 등 등록예고된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임 國博 관장에 민병찬 경주박물관장

불교조각 전문가… '고려불화대전' 기획도



국립중앙박물관 신임 관장에 불교조각 전문가인 민병찬 국립경주박물관장〈사진〉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11월 1일 12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관장을 임명했다. 민병찬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불교조각사를 전공한 불교미술 전문가다.

민 신임 관장은 1989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로 입사한 이래, 2018년까지 전시과장 · 연구기획부장 · 학예연구실장 등 박물관 내 주요 실무직책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활동했다.

민 신임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재직 시절 '고려불화대전' '고대불교조각대전' '한 · 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등의 전시를 기획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초기 불교미술 연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여래좌상 연구' '반가사유상의 성립과 전개' 등이 있으며, 저서로 〈불교조각〉 1 · 2가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연구'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불교학연구〉가 2020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재인증 평가에서 '우수등재학술지'로 재인증됐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학연구〉는 앞으로 5년간 '우수등재학술지'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불교학연구회는 "이번 재인증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우수학술단체로 다시 우뚝 서게 됐다"면서 "한국불교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0년 봄을 기점으로 '스코퍼스(SCOPUS)' 등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코퍼스(Scopus)'는 네덜란드 엘스비어 출판사가 2004년에 만든 전 세계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다.

불교학연구회는 "앞으로도 한국의 불교학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 많은 조언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 지성 위한 반야의 요람 10년

11월 1일 제10회 반야학술상 시상식 개최

불교학 연구 동기 부여
현대에 맞는 불교 관점
인재불사 및 연구 이어
학자들 연구 공덕 찬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반야불교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반야학술상 시상이 10회를 맞았다. 반야학술상은 국내 불교학술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음, 즉 선불교를 강조하는 한국불교에서 학자들은 뛰어난 연구 성과가 있어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기부여가 부족했다. 그 시대 좁고 편향된 사고를 뒤로 하고 반야학술상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계기를 안겨줬다. 균형 잡힌 시각과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현대인과의 소통에 실마리를 제시해줬다는 평가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11월 1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제10회 반야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간단히 인사말과 시상 및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장 지안 스님은 반야학술상 제정에 대해 "불교 학자를 응원하고 불교계 학술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스님은 "신앙적 측면에서 법회나 기도 등은 잘해왔지만 불교 전반에 걸친 학술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11월 1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제10회 반야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연구 분야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을 당시 교수님들의 제안이 있었다"며 "반야학술상은 불교 학자들을 응원하고 그 공덕을 찬탄하기 위해서 제정됐고 불교 교법을 진실하게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불교계를 위해 활동을 잘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0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는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다. 김성철 교수는 서울대 치과대학 치의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도철학과 석사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동국대(경주, 서울), 중앙승가대, 성화대(현 선문대) 강사로 활동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장,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불교문화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이다. 저서는 〈역설과 중관논리〉, 〈용수의 중관논리의 기원〉, 〈중관사상〉, 〈붓다의 과학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2월 2일 운영위를 개최하고 학술상 심사 규정에서 사회 업적 부분을 강조, 심사키로 결의했다. 8월 13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3차에 걸친 심사 후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김성철 교수는 "사실 반야불교문화원과는 큰 인연도 없을 뿐 아니라 스님 혹은 교수님들과도 소통이 없었는데 수상 소식에 놀랐다"며 "앞으로 정년이 2년 정도 남았다. 그동안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지안 스님은 "상을 받는 교수님과 학술연구에 앞장서는 교수님들이 주인공이다"며 "수상자 지정에 그 어떤 간섭도 없어야 하며 순수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반야불교문화원은 2011년 8월 설립됐다. 매년 반야학술상을 시상하며 불교 학자 연구지원 및 학술 활동을 후원했다. 아울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불교연구 발표를 이어오고 있으며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 사업, 불교고전 번역 및 불교 서적 기획출판, 불교학술지 및 월간 반야 보급 등에 앞장서 왔다.

광주불교연합회 회장에 도성 스님

11월 3일 정기총회서 당선
"승가화합, 원융살림" 포부



광주불교를 대표하는 광주불교연합회 회장에 도성 스님(복암사 주지 · 사진)이 당선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지난 11월 3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도성 스님, 수석부회장에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월인 스님(법륜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을 선출했다. 감사에도 인성 스님(관음암 주지), 혜법 스님(미륵사 주지)을 선출하고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제5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당선된 도성 스님은 "2년간의 소임을 통해 지금보다는 더 발전하는 광주불교의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승가의 화합과 원융살림을 통해 건강한 단체를 만들고, 종단을 넘어서 어른 스님들을 늘 예경하고 후배스님들과 화합해 단체를 같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불교연합회는 창립 후 8년간의 여정을 통해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승가단체이자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는 불교단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선출된 도성 스님은 1974년 장성 백양사에서 출가해 1981년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백양사 교무국장, 무안 보광정사 주지, 광주 관음사 주지, 호남불교대학 학장, 광주 정토선원 창건, 영광 불갑사 주지, 영광 마라난타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39호 전통불복장 전수자이기도 한 스님은 광주 복암사 주지와 백양사 인사위원장,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경 스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제 41회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복지향상 노력 공로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이 제41회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경 스님은 11월 4일 전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 41회 흰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복지대회〈사진〉에서 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한 보경 스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왔을 뿐인데 부끄럽다"며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주시는 쌍봉사 섬김봉사단을 대리해 수상한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보경 스님은 진안지역의 7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의 여름수련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비의 쌀과 난방유 등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왔다.

송경효 시각장애인협회 진안지회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보경 스님의 수상을 진안 시각장애인들을 대표해 축하드린다"며 "진안에서 최초로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기념식에서 행사장 안내와 시각장애인들의 식사도우미로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보경 스님은 섬김봉사단(단장 양행금)과 함께 '찾아가는 마을 밥상'을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자비의 쌀 나눔, 코로나 방역봉사활동, 수제마스크 만들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겨울 난방유 지원 봉사활동에 동참해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토마을, 코로나도 이겨 낸 국경 넘은 사랑

국경없는민들레, 11월 3일
미얀마에 긴급구호물품 전달

코로나19로 오고가는 국경은 막혔어도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온정은 더욱 따뜻해졌다.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국경없는민들레(원장 능행 · 이하 국경없는민들레)는 11월 3일 정토마을 경내에서 미얀마 긴급구호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정토마을국경없는민들레는 현대문명의 불모지인 해외 오지에 진료소 건립, 의료봉사 등 국제 의료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매년 해외 오지를 방문하며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을 할 수 없자 또 다른 후원 방법을 모색, 멈추지 않는 나눔으로 눈길을 모았다.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국경없는민들레는 11월 3일 정토마을 경내에서 미얀마 긴급구호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국경없는민들레는 미얀마에 40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긴급구호물품은 검사키트, 방호복, 보호대, 장갑, 마스크, 생필품 등 총 17만183개, 114박스로 꾸려졌다.

국경없는민들레의 나눔 활동은 6월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6월 21일~8월 27일 동안 1차 모금활동을 진행해 1억 1561만원을 모았고 네팔 수나빠띠 마을, 인도 보디트리후원회 (사)물라싼가, 스리랑카 데니야야 딤블라, 전남 곡성 침수피해지역 등에 모든 금액을 회향했다.

2차는 9월 21일~10월 21일 동안 진행됐으며 총 1억5561만원을 모금해 긴급후원을 진행했다. 2차 후원금은 스리랑카, 필리핀, 남인도, 미얀마 등 해외 오지에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 지안 스님 외 관계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능행 스님은 "코로나 사태가 인도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식량, 식자재 그리고 의료 장비들을 지원하며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다"며 "생명보호는 정토마을의 실천철학이자 사명이다. 일체 중생들의 평화적 공존과 공생을 위해 우리는 헌신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 제9회 전통음식문화 한마당

11월 4일 해남사서 현대인 삶의 방향 제시 평가

자연에서 나온 순수한 계절 음식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산옹)는 11월 4일 해남사 경내 일대에서 '제9회 전통음식 한마당'〈사진〉을 개최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가 주최하고 해남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봄, 가을, 꽃, 약초, 울산 옹기와 도자기에 담은 계절 차림'이란 주제로 마련됐다.

선보인 음식들은 사찰음식전문가 명천 스님과 마선영 소목문화원 대표가 직접 마련한 제철 채식요리이다. 명천 스님은 30년 간 불교 복식과 불화, 공양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전파하는데 매진하고 있으며, 마선영 대표는 20년 간 선원에서 활동하며 사찰 음식과 채식요리를 연구해 다양하게 알리는 데 노력해왔다.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산옹 스님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지만 오래된 것들과 느림의 가치를 발견하고 음식의 향기를 나누며 담소의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울산불교연합회장 산옹 스님,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 월봉사 주지 보화 스님, 정광사 주지 유정 스님, 향원암 명천 스님,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회의장,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외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45기 합동득도 수계산림법회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이 제45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수계식〈사진〉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가 수행자 60명을 배출했다.

11월 4일 순천 선암사(주지 시각) 대웅전 앞에서 봉행된 수계식에는 종정 지허 스님과 삼사로 나선 총무원장 호명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을 비롯해 각 지역 종무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계한 사미 43명, 사미니 17명은 10월 6일부터 30일간 기초습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예불 및 불공의식, 종지 · 종풍과 종단사 교육, 울력 등을 진행했다.

지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무릇 수행자는 성불을 목표로 정진해야 한다. 부처님의 경전은 모두 성불하여 부처가 되라는 말이므로, 신심을 다해 정진하고 그 원을 돈독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계식 교육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정법(제성민), 우수상 덕인(박정숙), 모범상 인정(이범덕), 공로상 화화(윤병열), 공로상 법담(정영효) 스님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좌불와 정오 스님 49재 회향법회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석굴이 모셔진 팔공산 석굴암 경내 극락전에서 11월 4일 여산당 정오 스님의 49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회향법회에는 입적한 정오 스님의 은사인 팔공산 석굴암 주지 법등 스님과 문경 봉암사 초대 선원장 법화 스님, 성전암 현응선원장 벽담 스님을 비롯한 도반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입적한 정오 스님은 1958년 전북 순창군 복흥면에서 태어나 1977년 대구 동화사에서 법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9년 동화사 염불암에서 장자불와를 시작해 ,벽송사, 봉암사,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등지에서 42여년간 결가부좌로 자리에 눕지 않고 정진해 수행가풍을 일신했다. 이후 1994년 전라도 곡성군에 위치한 삼불산 아래 만년사를 창건했다. 스님은 2020년 9월 17일 만년사에서 법랍 44세, 세수 63세로 입적했다.

법화 스님은 "생사가 둘 아닌 도리를 알아 대자연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산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성료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 2020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인 '마음 쉬는 토요일'〈사진〉이 11월 1일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성료됐다.

'문화재 활용이 최고의 보존이다'는 기치 아래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김제시와 함께 전통산사에 깃든 역사문화재를 향유하고 오늘날 시대정신에 맞게 재해석된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했다는 평가다.

금산사는 소리꾼 두 명이 출연하는 '놀부가 들려주는 금산사 보물이야기', 미륵전 인경체험, 미륵전을 전통 결구법으로 조립해보는 미륵전 신건축학개론, 오유지족 다식다도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열어 코로나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국보 제62호인 미륵전은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을 형상화한 것인데 이 전각 안에 깃든 지족(知足)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순간 순간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의미를 배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현불 논단 |

상월결사 1주기에 부쳐



그림 · 최주현

단발성 이벤트 아닌 정통성 가진 불교혁신운동
새로운 수행공동체, 정법불교 나아가는 디딤돌
가을 국토 가로지르는 순례에서 '동체대비' 체감
회향하니 지난 시간 꿈같아…모든 대중에 감사



윤재웅 학장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아, 상월결사

상월결사 1주기를 맞는다. 2019년 11월 11일, 서릿발 내리는 가을밤에 상월결사의 첫 밤이 시작됐다. 위례 신도시의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아홉 스님이 한겨울을 났다. 묵언수행. 하루 밥 한 끼. 14시간의 참선. 90일간 옷 한 벌. 목욕과 삭발 금지. 한국 불교사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불교수행의 새로운 형태가 탄생했다.

돌아보면 고려시대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가 있었고, 1940년대 후반엔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가 있었다. 20~30대의 청청한 수좌들이 기개를 떨친 한국 불교사의 일대 쾌거다. 상월결사는 더 놀랍다. 도심지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세납 60을 훌쩍 넘긴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의 원로 중진 스님들이 함께했다.

산중불교가 도심불교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수행이 기본이라는 부처님 정신의 구체적 실천이었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입재부터 결재까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무문관 수행의 막다른 골목이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라고, 마지막 1주일은 철야정진을 자청했다. 장군죽비가 여러 개 부러졌다.

외호대중도 함께했다. 천막 아래 임시 법당을 짓고 아홉 스님을 위해 기도하고 정진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때로는 야단법석 공연도 있었다. 산중의 선방 참선 모델을 파격적으로 혁파하는 새로운 수행법에 일부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묵직한 감동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홉 스님의 상월결사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사람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말로 무어라 설명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그냥 흘렀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았다. 수행자의 솔선수범이야말로 한국불교 발전의 최우선 해법이 아닌가.

가을 불국정토

결사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불교혁신운동이며 새로운 수행 공동체의 탄생을 통해 정법불교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공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불교 '자성과 쇄신'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개혁의 동력이 파격적 혁신으로 나타난 게 상월결사라면 이 혁신결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2020년 들어 상월결사의 뒤를 잇는 만행결사가 기획됐다. 상월결사가 비구스님들만의 용맹정진이라면 만행결사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새로운 불교 공동체의 출발이다.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가 차별 없이 똑같이 수행한다.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며, 길 위를 걷는 '움직이는 불교'다. 이제 한국불교는 찾아가는 불교, 능동적인 불교, 중생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불교로 재탄생하라는 자기 명령을 따르기 시작한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려던 계획이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순례로 바뀐다. 부처님 나라가 어디 인도 뿐이랴. 불자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불국정토다.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500km. 세 시간이면 갈 길을 스무하루동안 걸어간다. 불교중흥, 국난극복, 만행결사, 자비순례의 길이다.

순례단 일원이 되어 체험해보니 세상이 아름답게 빛난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중중첩첩의 산줄기, 말없이 흐르는 유장한 강물. 해와 달과 별빛과 바람, 천산만야의 단풍과 들국화 향기가 온몸에 배어든다. 아름다운 강산이다. 이 가을 이 땅이 온통 부처님 나라다.

국토의 가을을 통짜배기로 지나는 경험도 특별하다. 초추부터 만추까지, 남쪽의 낙동강에서 북쪽의 한강까지, 산줄기가 흘러내려온 길을 따라 산 넘고 물 건너 걷고 또 걷는다.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소리도 새롭게 들린다.

새벽에 일어나 마을을 지나가면 동물들도 순례단의 신심과 원력을 알아차린다. 닭이 울고, 개가 짖고, 소가 소리를 내지른다. 내 발가락이 아픈 것은 중생이 다 아파서인가 보다. 동체대비의 공감이 육도에 다 울려 퍼지면 얼마나 좋을까. 진정한 공감이란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달성군을 지날 때 낙동강변 축사의 씩씩한 황소 소리를 아직 잊지 못한다. "힘~내~", "힘~내애~~" 얼마나 힘차게 내지르는 소리인지 7월의 쌍무지개도 뛰어넘을 기세다. 문경 지나 이화령을 넘어오자 황금들판에 추수가 한창이다. 가을 햇살이 고슬고슬한 햇밥 같다. 생명이란 이런 거다. 씩씩하고 들썩들썩하는 거다. 몸이 움직여 나아가는 거다.

내일의 또 다른 결사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이들을 자주 만난다. 환희심에 가득찬 얼굴로 박수를 치는데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얼굴을 마주치면 공연히 내가 울컥한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본다. '고마워요. 수고하십니다. 저도 같이 걷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 제 몫까지 걸어주세요. 우리 불교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빵 하나를 나누면 내 몫은 줄어들지만 감동은 나눌수록 모두의 몫이 커진다. 결사란 결국 무엇인가? 잠깐 한 눈파는 사이에 부처님 가르침에 벗어나 있음을 알아차리고 정법불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뉘우치고 마음 다잡아서 초발심의 세계로 나아가자는데 어찌 공감이 없고 감동이 없으랴. 굳게 믿고 간절히 원해서 실천에 옮길 때 모두가 공감하고 감동하는 법이다.

한국불교의 미래가 신심과 원력과 수행에 기초한 공감과 감동에 있다는 걸 실감한다. 순례길 끝에 와서 자문해 본다. 내일의 새 길은 무엇인가. 지옥 밑바닥에서 천상의 꼭대기까지, 뭇 생명이 감동하는 드라마를 계속 써 가야 하지 않을까. 봉은사에서 회향식을 마치고 나니 지난 3주일이 꿈만 같다. 몸은 고달프지만 마음은 편안하다. 동참대중 모두에게 감사하고 함께하지는 못해도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절을 올린다.

순례 기간 내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이들이 많다. 전염병이 만연한 와중에 순례길을 나선 우리에겐 큰 힘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직 사람이다. 너나 없이 존귀하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다. 서로 위하고 돕는 게 법이다. 돕는 손길이 보살행이요 위하는 마음이 자비행이다. 공감하고 감동하는 서로의 가슴이 우리의 희망이다.

암과 싸우며 순례에 참여하는 보살님이 자자회에서 울먹이며 말한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고 하지 않았나요. 용기를 내서 걷고 싶었어요." 장내가 숙연해진다. 감동으로 하나가 된다. 삶을 향한 치열한 정신은 고통과 싸워 이길 때 더욱 아름답다. 이게 바로 상월결사의 정신이요 실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고통 가운데 피어나고 위대한 승리는 좌절 속에서 성취된다. 나무 석가모니불.

社 說

연꽃마을 30년 재도약 계기되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3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연꽃마을은 효의 사회화를 주창하며 노인복지를 견인했고, 이후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선도해 온 대표적인 불교복지법인이다. 연꽃마을 창립자 덕산당 각현 대종사의 원력이 지금까지도 불교계 안팎에서 거론되는 이유는 지금의 연꽃마을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각현 대종사는 불교복지의 선각자로 평가된다. 노인복지시설로 시작해 여러 형태의 노인복지 분야로 범위를 확장했을 뿐 아니라 무료병원과 어르신 전문 요양병원까지 설립, 운영하며 연꽃마을의 파격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2014년 스님의 입적 이후 스님의 부재로 인한 그늘이 쉽사리 걷어지지 못한 것도, 스님의 역량과 원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침체기로 접어드는가 했던 연꽃마을이 3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다시 도약을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각현 대종사의 창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불사를 통해 정체성을 확보했으며, 재정에 큰 부담이 됐던 임대 사무실을 정리했다. 한발 더 나아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법인 사옥 건립불사는 변화의 기폭제다. 쉽지 않은 여건에서 이룬 결과물인 만큼, 연꽃마을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도 됐다.

지난 30년 연꽃마을이 남긴 족적이 크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결집하고 연구해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조해 내실을 강화할 때다. 연꽃마을이 이번 전환기를 제대로 맞이한다면 미래복지 30년 역시 연꽃마을이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계, 내부 자성으로 변화해야

남양수 수진사 방화사건의 후폭풍이 크다. 기독교 광신도의 방화로 한 사찰의 전각이 전소된 것은 불자들의 공분을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훼불을 넘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이 우리사회의 화합을 해친다는 공감대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훼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 입장문을 공식 발표한 이유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입장문이 발표된 연유는 중요하지 않다. 주류 개신교계가 훼불사건을 더 이상 '개인의 행위'로 치부하지 않고 "종교의 다름을 떠나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종교적 상징에 대한 방화나 훼손 사건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한 것이란 사실에 근거하여 극단적으로 퇴행하는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며 회개한다."

입장문에 담긴 이 한 문장에서 개신교의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개신교계가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직시하고 내부적 자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한발 더 나아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수진사 복구를 위한 모금활동을 범기독교 차원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실천적인 형태의 움직임이다.

불교계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개신교계의 이 같은 변화가, 그리고 내부적 자성의 목소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를. 그래서 개신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우리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역할하길 발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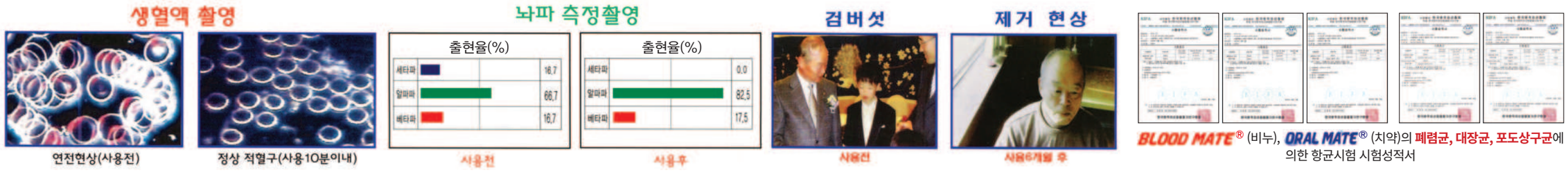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을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주고 혈액,세포,뇌파를 건강하게하는 게르마늄허브비누
포도상구균 99.9% · 폐렴균 99.9% · 대장균 99.9% 정균감소기능으로 아토피, 무좀, 검버섯, 뾰루지,
여드름,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 발뒤꿈치 각질개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 41년 3월생 개발자 본인은 관절 불편을 느껴보지 못했고, 안경없이 신문을 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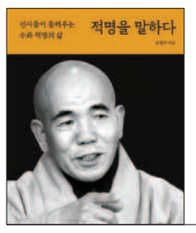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4~11/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2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3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자식의 코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5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6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7	아비담마 길라잡이 (1)아비담맛타상가하	대림스님/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8	칸니명상	수망갈라/차은숙	운주사
9	능엄경 대의 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10	오온과 전오식 (붓다 마음의 뇌과학 시리즈1)	문일수	무량수

책세상

한국 대표 선승… "조실보단 수좌로 살겠다"



적명을 말하다

유철주 지음 / 사유수 펴냄 / 1만5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적명 스님은 한국의 대표 선승이셨습니다. 행(行)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후학 지도에도 힘을 다한 진정한 선지식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수좌들의 리더가 되어 주었던 적명 스님 같은 분이 앞으로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한국불교를 이끌었고 수좌들에게 의지처가 되었던 적명 스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 원각 스님(해인총림 방장)

인연 지인 17명이 들려 주는
수좌 적명의 삶 · 수행이야기
큰방서 대중과 정진 · 운력해
"수행 따로 행 따로 안 된다"
평생 수좌 면모 지키며 수행
승단 위한 많은 불사에 헌신



1980년대 적명 스님은 홀로 양산 비로토굴에서 수행했다. 포행길에서 잠시 쉬고 있는 적명 스님.

2019년 겨울, 홀연히 원적에 든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을 기억하는 글들을 모은 책이 나왔다. 책은 적명 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불교계 원로, 중진 스님 16명과 적명 스님의 속가 동생 김동호 거사가 수좌 적명 스님의 삶과 수행에 대해 들려주는 지난 이야기들이다. 적명 스님은 2009년 대중들의 조실 추대를 고사하고 봉암사 수좌로 들어갔다. 당시 스님은 "나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조실 말고 수좌로 살겠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조실의 자리도 고사하고 평생 큰방에서 대중과 함께 공부하며 평생 '수좌'의 이름으로 살았던 적명 스님의 생애를 들여다본다.

1939년 제주에서 태어난 적명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다르게 깊어진 철학적 사유를 끝내 놓지 못하고 출가를 결심했다. 스님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며 출가를 허락하지 않던 모친께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묘를 모시고 나서 출가하겠습니다"고 했고, 마침내 모친으로부터 묵언의 허락을 받아 출가했다.

스님은 뭍으로 나와 나주 다보사 우화 스님 앞으로 출가해, 1959년 해인사 자운 율사로부터 사미계를 받았고, 1966년 역시 해인사 자운 율사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출가 전에 품었던 많은 물음의 답을 찾아 정진하던 중 관법수행을 만나 공부를 넓혔으며, 26세에 보조국사의 〈절요〉를 읽다가 "수행을 하려면 모름지기 활구참선을 해야 한다"는 구절을 만나 무자화두를 시작했다. 28세에 해인사를 찾은 스님은 해인총림이 개설되고 성철 스님이 50대 방장에 추대되어 선풍이 크게 일자 선풍에 모든 공부를 걸고 평생 선방을 떠나지 않았다. 당대 선지식이었던 전강, 경봉, 성철, 서옹, 향곡, 구산 스님 등 문하에서 정진했고, 〈능엄경〉 42변마장의 내용이 낱낱이 사실임을 체험하고 화두선에 더욱 매진했다.

스님은 오로지 본분사에만 매진하고 선방 밖의 일에는 거의 마음을 두지 않았으나, 간혹 법을 묻는 이가 찾아오면 다양한 비유와 진솔한 설법으로 대중을 성불의 길로 이끌었다. 중도교의가 불교의 근본임을 설파했으며, 화두선이야 말로 중도를 바로 체험하고 깨닫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설사 화두 타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는 공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선원 선원장, 고불총림 백양사 선원 선원장, 수도암 선원 선원장, 은해사 기기암 선원 선원장 등을 역임했고, 전국수좌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스님은 2009년 정월 구산선문 중 하나이자 봉암사 결사의 청정도량인 봉암사에 머물면서 대중의 추대로 수좌 소임을 맡은 후 입적하는 날까지 대중과 함께 정진, 운력, 공양하는 등, 수행자의 본분을 보였다. 평소 "수행자는 수행 따로 행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지켰던 스님은 종단에 일이 있을 때면 직언을 서슴지 않았고, 때로는 행동도 불사했다. 그렇게 평생 수좌의 면모를 지키며 살았던 스님은 간화선 선풍을 진작하고자 2015년 선원수좌회와 공동으로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추진했고, 수행자를 위한 '수좌복지회' 불사를 회향했으며, 원로 수좌를 모시기 위해 봉암사에 원로선원을 건립하는 등 승단을 위한 많은 불사에도 헌신했다.

2018년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2019년 12월 24일에 입적했다. 세납 81세, 법랍은 60세였다. 수좌로 살다 수좌로 가는 것이 꿈이었던 스님은 산이 좋아 평생 산에서 살다 산에서 떠났다.

"스님에 대해서는 여러 수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천상 수행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평생 수좌로서 열심히 정진했고 후학들을 잘 가르치려고 애쓰다 가셨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살아서 수행승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축서사 문수선원 선원장 무여 스님은 추천사에서 적명 스님을 '수행승들의 귀감'으로 적고 있다. 선원마다 참선의 열기로 뜨거웠던 1970~1980년대, 그 열기의 중심에 우뚝 서있었던 수좌 적명은 깨달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항상 양심적인 수행자였다. 적명의 면모는 곧 수좌의 면모였다. 그의 모습이 곧 '책'이었다. 시절에 따라 수행환경이 변했지만 어느 자리에서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수행에서 끝나지 않고 수행의 저변이 되었다. 무여 스님은 "이제 적명 스님이 떠나고 나니 한 사람의 수행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울림이 얼마나 큰지 새삼 알게 됩니다. 스님이 평생 힘써온 깨달음과 수행의 문제 그리고 한국불교의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은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됩니다."며 스님을 추억했다.

책 〈적명을 말하다〉는 60여 년 수행자로 자유인을 꿈꿨던 수좌 적명의 생애를 통해 오늘의 수행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 유철주는 불교 언론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고 인연이 되어 많은 수행자들을 인터뷰했다. 이번 아홉 번째 책으로 적명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적명을 말하다〉를 썼다.

수좌 적명을 기억하는 글들

"죽음보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평생의 삶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죽음의 형태는 몸뚱이를 버리는 방법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적명 스님은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존경합니다. 우리 시대에 스님 같이 고집스럽게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셨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조사스님들 가풍이 적명 스님과 같은 분들 덕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훗날 사람들은 현대 한국불교에 적명 스님이 있었기에 행복한 불자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 선원장)

"적명 스님은 수행의 모든 것을 체험한 납자이면서 이론에도 통달하셨습니다. 초기불교는 물론 대승과 선에도 매우 해박했습니다. 리더십도 뛰어났습니다. 대중들을 이끄는 힘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강자들에게는 엄청 강하셨고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분이었습니다. 또 정의감도 대단해 교단의 모순이 보이면 발언하는 것을 서슴지 않으셨구요." 의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제가 죽비를 잡았던 철이었습니다. 해제 전날 자자(自恣)를 마치고 대중들과의 교감 끝에 스님을 큰방에 모시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중의 이름으로 스님을 조실로 추대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던 적명 스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고우 스님과 나는 이미 오래전에 조실 같은 소임을 맡지 않기로 약속을 했네. 만약 내가 조실을 안 해서 봉암사가 잘못된다면 하겠지만 우리 대중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스님을 조실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영진 스님(인제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적명 스님이 수좌로 들어오시면서 봉암사는 종립선원(宗立禪院)의 면모를 다시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중생활의 원형이 복원되기 시작한 것이죠. 스님은 수좌로서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후배들에게 항상 '견성하지 못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화두를 놓지 말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는 당부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적명 스님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수좌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원칙에 충실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좌 중의 수좌였습니다." 원타 스님(해인총림 유나)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대의왕 가르침 되새기며 중생 치유”

INTERVIEW

백옥란영예장 수상한

홍원숙 상하이중의약대 교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월 28일 공정(龔正, 사진 오른쪽) 상하이시 시장이 홍원숙(사진 왼쪽)에게 ‘백옥란영예장’을 수여하고 있다. ‘백옥란영예장’은 상하이 지역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의미있는 상이다.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8차 여성불자 108인인 홍원숙 상하이중의약대학 부교수가 9월 28일 한국인 최초로 중국 상하이 ‘백옥란영예장(白玉蘭榮譽獎, Magnolia Gold Award)’을 수상했다. 앞서 홍 교수는 지난 2017년 ‘백옥란기념장(白玉蘭記念獎 Magnolia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옥란장’은 중국 상하이시의 시화(市花)인 백옥란을 기념해 제정된 훈장으로, 상하이 경제·사회발전 및 대외교류에 공헌이 큰 외국인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한다. ‘백옥란장’은 1989년 제정한 ‘백옥란기념장’과 1992년 제정한 ‘백옥란영예장’ 2가지가 있다.

홍 교수가 이번에 받은 ‘백옥란영예장’은 ‘백옥란기념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백옥란기념장을 수상한 뒤 2년 이상이 지났거나 상하이와 3년 이상 우호 관계를 맺는 데 큰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만 수여된다. 현재까지 총 342명의 외국인이 수상했다.

현재에도 상하이 현지서 의술을 펼치고 있는 그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홍 교수와의 일문일답.

상하이 중의학 발전 공헌 인정돼
한국인 최초 ‘백옥란영예장’ 수상

난치병 가족 위해 중국 유학 결심
외국인 최초 상하이 중의사 거듭
108참회로 주체적 의료인 ‘고찰’

Q. 상하이 백옥란영예장 수상 소감은?

A. 부처님의 가피로 백옥란영예장을 받게 돼 너무나 감사하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넓고 심오한 중의약 문화와 상하이 중의(海派中醫), 중의약 치료 체계를 한국과 세계에 전파하는 데 힘쓰겠다.

Q. 중국 중의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A. 대학은 한국서 동국대를 졸업했으나, 가족이 난치병을 앓고 있어 1993년부터 중의학을 공부하게 됐다. 중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서는 “첫째는 꼭 학업을 성취해라. 둘째는 한국 하늘과 중국 하늘은 똑같다. 그러므로 부모가 항상 너와 함께 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지난 2002년 외국인 최초로 중국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임상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007년 중의내과학 임상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전에는 상하이중의약대학 부속 용화(龍華)병원·부속 서광(曙光)병원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상하이 민항구(閔行區) 중의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한국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를 겸임으로 역임했다.

Q. 사스(SARS) 때부터 중국 감염병 유행때 활약했다 들었다.

A. 지금까지 중의학계에 몸담은 지 28년이 됐다. 중국에서 지난 사스(SARS, 2003)·신종플루(2009)에서 코로나19(2020) 사태까지 상하이 환자들과 함께했다. 2003년 사스가 창궐할 때 타국 대학원생은 모두 귀국했다. 난 그때 상하이중의약대학 부속 용화병원 응급실에 배치됐다. 마침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너는 의사다. 의사로서 너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만약 네가 희생된다면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배정된 응급실 환자를 정성껏 돌봤다. 또 2009년 신종플루 때는 상하이중의약대학 부속 서광병원 응급실과 발열 호흡기 외래 진료소(發熱門診)에서 9개월간 진료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창궐해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전통의학을 다루는 중의사와 현대의학을 다루는 서(西)의사(한국의 양방)를 구분하지 않고 대등하게 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 참여한다. 현재 발열 호흡기 외래 진료소에 배치되지 않았지만 병원서 방역 준칙을 지키며 진료한다.

Q. 불교와의 인연은?

A. 우선 가족 모두가 불교와의 인연이 깊다. 부산 능인선원에 주석하며 불교 선차(禪茶)를 계승·전파하고 계시는 성각 스님이 제 언니이시다.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재학 당시 집에 있는 티베트불교 서적을 읽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물론 언니이신 성각 스님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성각 스님은 경봉(鏡峰) 선사를 통해 서울 방생선원 정관 스님의 상좌가 됐다. 저의 법명 만덕화(萬德華)도 고등학생 시절, 정관 스님께서 내려 주셨다. 스님께서는 법명을 주시며 “자라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만 가지 덕을 쌓아라. 살면서 덕을 많이 쌓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정관 스님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고 살고 있다.

Q. 평소 마음에 새기는 경구는?

A. 〈임제록〉에 있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인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곳이 참된 곳이다’라는 의미인데 되새길 때마다 의료인으로서 본분이 무엇인지 고찰하게 된다.

Q. 평소 신행생활은?

A. 1993년 상하이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상하이 한국인 불자 모임인 ‘반야회(현재 용화선원)’을 다녔으나 지금은 옥불선사(玉佛禪寺)에 자주 간다. 이번 수상 직후인 음력 8월 15일에도 옥불선사 부처님을 참배하고 ‘백옥란영예장’을 부처님전에 바쳤다. 또한, 아침마다 108참회를 통해서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심을 키워가고 있으며,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 8차 회원으로서 선배 불자에게 배우고 있다.

Q. 향후 계획은?

A. 부처님의 칭호 중 하나가 ‘대의왕(大醫王)’이다. 질병의 고통에서 구제하는 의학은 불교와 마친가지로 국경을 초월한다. 불자 의료인으로서 앞으로 어디서 일하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병마와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희대 요승인가, 시대의 희생양인가?

日 도쿄선사, 재조명 시작돼

선사이자 일본의 ‘신돈’
정무 관여한 권력자로
비판적인 평가 받아와
객관적 연구 필요 제기

한국사에서 권승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악평을 받아온 묘청, 신돈과 같이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역사 속에 악평을 받아온 스님이 있다. 10월 22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동안 외면 받아 왔던 ‘도쿄(道鏡)선사(?~772)’에 대한 재조명을 보도했다.

도쿄선사는 일본 고대사에서 천황을 감싸고 조정을 흔든 권승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 이유는 전례가 없는 급진적인 출세가도 때문이다. 세도가의 후예로 태어나 일찍이 출가한 도쿄는 법상종의 교의와 범어를 수학하고, 특히 선(禪)에 밝았다고 전한다. 이로 인해 왕궁의 내불당에 선사로서 출입을 허락받았다.

그러던 중 천황이 중병에 걸리자 직접 간병을 하며 쾌유를 발원하는 기도회를 봉행했고, 왕이 완치된 이후로 특별한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 일본의 출가자를 통솔하는 부관리자에 해당하는 소승도(少僧都)에 임명된 지 이듬해, 조정 대신의 관직을 받아 정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조정을 통솔하는 수장인 태정대신(太政大臣)에 임명됐다. 이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해에 법왕(法王)이라는 왕위를 받아 불교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했다. 소승도 이후의 관직은 모두 도쿄선사를 위해 새롭게 제정된 관직이다.

도쿄선사의 일족이 고위직으로 중용되었으며, 심지어 도쿄선사가 천황이 되어야 한다고 신탁이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퍼졌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반대파들의 주장으로 좌천되었고 얼마 안 되어 입적했다.

이러한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도쿄선사는 정치에 깊이 관여한 야심가로 보이며, 오랫동안 국정을 어지럽힌 요승의 대표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도쿄선사는 시대에 휩쓸려 희생된 인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교토여대의 타키나미 사다코 명예교수는 “실제 사료적으로 봤을 때 도쿄선사가 강압적인 정책을 펼친 악인이라는 증거는 빈약하다. 그러나 또 종교지도자로서의 눈에 띄는 공적도 없다. 시대의 격류 속에 휩쓸려 악명을 쓴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슈치인 대학의 교수인 사에키 슌겐 스님도 “도쿄선사는 필요 이상의 악역으로 묘사되고 있다. 오히려 도쿄선사는 불교의 이념으로 ‘적도 친구도 모두 평등함(怨親平等)’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도쿄선사의 출신지로 알려진 야오시(八尾市)에서 선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유게지(由義寺)의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한 면이 2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칠층탑의 터와 예상을 초월한 대규모의 유적이 발견됐다. 또한 이 사찰에 천황이 직접 참배했다는 사료 등이 발굴되면서 도쿄선사가 단순한 권승이 아닌 중교적인 위신도 뛰어났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도쿄선사를 재평가하고 현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출신지인 야오시에서 결성된 현양회인 ‘도쿄를 아는 모임’은 도쿄선사의 좌상을 조성했다. 지금까지 악역으로 묘사되어 왔던 선사의 위엄을 되찾기 위해서다. 완성된 좌상은 도쿄선사가 중창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다이지(西大寺)에 봉안될 예정이다. 현양회 측은 “도쿄선사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알고, 올바르게 평가 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 이번 발굴결과와 좌상 조성을 계기로 더 많은 연구가 진전, 심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도쿄선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현양회가 조성한 도쿄선사 좌상. **사진출처=니혼게이자이 신문**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韓불교 시작 · 중흥 이끈 이방인 선지식



이상근의
聖寶流轉
㉑ 胡僧들이 남긴 유산



신륵사 조사당 내에 모셔진 지공 · 나옹 · 무학 대사의 진영들. 가운데가 호승 지공 화상의 진영이다. 1363년 고려를 찾은 자공 화상은 당시 고려불교에 새바람을 일으켰고 나옹 선사에게 선맥을 전수했다.

한족의 중국이 영토와 문화에서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中華)사상에 대해서 기원이 언제인지는 학자마다 이론이 있지만 대개 이민족과의 충돌이 잦았던 춘추전국시대에는 이미 정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춘추전국시대라면 이미 기원전 이야기다. 그 주장에 따르면 한족의 중국 이외 지역은 동서남북 순서로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이다. 그런데 이 중화사상은 자발적이든 강요에 의해서든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공유된 세계관이었다.

정치나 외교는 차치하고 단어나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중화사상을 공유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당나라에서 들어온 나귀는 당(唐)나귀고 당나라에서 들어온 면은 당면(唐麵)이다. 그런데 한족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 들어온 것에는 모두 '오랑캐 호(胡)'를 앞에 붙였다. 호주머니, 호밀, 호떡, 호도(호두), 호초(후추) 등이 그렇다.

특이한 건 한족이 아닌 이들이 영토를 차지하자 중국 본토에서 들어왔어도 '호(胡)자'를 붙였다는 사실이다. 청나라가 쳐들어오자 호란(胡亂)이라고 불렀고, 또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 팔던 떡은 호(胡)떡이라고 불렀다. 나중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물건이나 먹거리에도 '호(胡)자'를 붙였는데, 임진왜란 당시 전해진 호박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한국불교사도 얘기하면서도 '호(胡)자'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불교의 시작이 그랬고 한국 선불교의 법맥 중 가장 중요한 고리가 그랬다. 그들의 존재를 우리는 '호승(胡僧)'이라고 불렀다.

호승, 한반도에 불교를 전하다

여전히 인도에서 배를 타고 온 허황옥 일행에 의해 가야에 불교가 전해졌고 이게 초전이라는 남방전래설이 한 축이긴 하지만 여하튼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온 건 중국으로부터다.

하지만 오해가 있다.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건 맞지만 우리나라에 불교를 처음 전한 건 중국 승려가 아니라 '호승(胡僧)'이었다.

불교 전래에 대해서는 〈삼국사기〉(1145년 전후 편찬), 〈해동고승전〉(1215년 전후 편찬), 〈삼국유사〉(1285년 전후 편찬) 공히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6월에 진(秦)왕 부견(符堅)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시켜 불상과 경문을 보내면서'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사기〉와 〈유사〉의 기록에는 없지만 〈해동고승전〉에는 순도의 출신이 '서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백제 불교의 시작도 역시 서역의 승려였다. 〈사기〉에는 "(384년) 9월 호승 마라난타가 진(晉)나라에서 오자, 왕이 궁중으로 맞아들여 우대하고 공경하였다. 불교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적고 있다. 〈고승전〉에도 호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고승전〉을 참고했을 〈유사〉 역시 분명히 호승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기〉와 〈유사〉와는 달리 마라난타의 삶을 몇 줄 더 기록할 수 있었던 〈고승전〉에는 마라난타가 '천축'으로부터 중국으로 들어왔고 다시 백제로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천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인도'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마라난타의 출신지를 놓고 간다라라는 설과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설이 맞붙어 지면상에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왜 중국의 스님들이 아니라 인도 출신(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아시아)의 스님들이 한반도로 들어왔을까?

이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불교사를 살펴봐야 한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건 후한(後漢)의 명제(明帝, 재위 58~75년) 때다. 물론 중국과 서역의 교통로가 개척되기 시작한 건 훨씬 전인 진한 무제(재위 BC 141~BC 87) 때로 알려져 있다. 물자가 오고 갔으니 자연스레 문화와 종교의 교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이지는 않았을 터. 여하튼 중국에 불교가 수입된 건 서기 65년 전후로 본다. 그런데 터를 잡는 데는 또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대략 기원후 2세기~ 3세기 정도부터 산스크리트 경전의 한역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토대가 닦인 것으로 본다. 그런데 또 이후 100년의 기간은 격의불교 시대였다. 불교 본래의 뜻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시대에 마침표를 찍은 인물이 구마라습(344~413)이다. 격의불교의 시대와 구마라습의 신역(新譯)이 있던 기간 사이에 대체로 중국에 불교교단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데 호승 불도징(佛圖澄, 233~348)과 그의 제자인 도안(道安, 312~385)이 활동하면서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계를 받는 한족이 없었는데 335년 전후로 한족 출가자들이 출현하게 된다.

中한족 이외 전래되면 '胡'로 붙여
호승 마라난타, 백제에 불교 전파
고려불교 새바람 일으킨 호승자공
한반도 불교의 발전, 호승 영향 커

고구려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372년과는 불과 40년 차이도 나지 않는다. 백제에 불교가 들어온 시기와는 또 50년 차이도 나지 않는다. 중국 교단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려고 했던 때 해외에 포교승까지 보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당연히 불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중국인이 아니라 인도 혹은 중앙아시아 승려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다만,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한 아도화상의 출신에 대해서는 기록이 난잡하고 헷갈린다. 〈고승전〉에는 "승려 아도(釋阿道)는 혹은 본래 천축 사람이라고도 하고, 혹은 오나라에서 왔다고도 하며, 혹은 고구려에서 위나라로 들어갔다가 뒤에 신라로 돌아왔다고도 하지만 어느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흔히 같은 인물로 여겨지기도 하는 묵호자와는 "비슷하게 생겼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연 스님도 〈고승전〉의 기록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지 '논'을 따로 붙여 헷갈리니 정리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연 스님 주장에 따르면 아도와 묵호자는 동일인물이며 고구려를 거쳐 신라로 왔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아도 화상은 240년~248년에 고구려에 사신으로 왔던 위나라 사람 아굴마(我堀摩)와 고구려 사람인 어머니 고도령(高道寧)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며 위나라에 들어갔다 다시 고구려로 넘어온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아도화상이 아니라면 신라에는 호승이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기〉에는 신라 진흥왕 37년(576)에 수나라에 불법을 배우러 유학했던 안홍 법사가 호승 비마라(毗摩羅) 등 두 명의 승려와 함께 귀국했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사기〉보다는 〈고승전〉의 내용이 조금 더 길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하튼 〈고승전〉은 최치원이 지은 〈의상전〉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밝히며 "북천축오장국의 비마라진제의 나이는 44세, 농가타의 나이는 46세, 마두라국의 불타승가의 나이는 46세였다. 52개국을 경유하여 비로소 중국에 들어갔다가 드디어 해동으로 와 황룡사에 머물면서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을 번역해 내니, 신라의 승려 담화가 받아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하튼 삼국 모두 중국에 교단이 안착되기 전부터 불교를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불교를 전한 이들은 한족 출신이 아니라 모두 인도 혹은 중앙아시아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선불교 중심축, 지공 화상

고려 시대에도 호승은 꾸준히 한반도를 찾아왔다. 천축국 승려 마후라가(태조 12년, 929년)를 비롯해 서천축의 홍법 대사(태조 21년, 938년) 등이 잇따라 방문한다. 하지만 이후에는 송나라 승려의 입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건 고려 중기를 넘어서면서는 토번 즉, 티베트 승려의 입국(원종 12년, 1271)이나 일본 승려의 입국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다. 바로 호승 지공 화상의 입국이다.

자료를 종합하면 지공 화상은 인도 마가다국 만왕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 여덟 살에 계를 받는다. 인도 나란다 대학의 마지막 졸업생이었으며(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슬람의 인도 침략으로 나란다 대학이 폐교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인도 전역 순례를 마치고 원나라에 들어와서 교화를 펼친다. 지공 화상이 고려에 들어온 건 충숙왕 13년(1326)이었다. 이후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지공 화상은 고려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그러다 다시 원나라로 돌아갔고 이때 나옹 선사가 지공 화상에서 법을 전해 받는다. 지공 화상이 열반에 든 건 공민왕 12년(1363)년 연경 천수사에서 였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372년 제자가 지공 화상의 영골을 고려에 모셔왔고 공민왕은 명을 내려 회암사에 부도와 부도비를 세우고 사리를 안치한다. 사리 안치를 담당했던 이는 지공 화상의 제자였던 나옹 선사였다.

이후 한국 선불교의 법맥은 지공→나옹→무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나옹 선사 이후의 법맥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지만, 한국불교의 선맥(禪脈) 중간에 호승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

지공 화상에 대한 유물은 꽤 많은 편이다. 회암사지에 부도도 남아 있고 통도사, 대곡사, 신륵사 등에 삼화상(지공 · 나옹 · 무학) 진영도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호승은 한반도 불교의 시작 그리고 절정의 핵심이었던 셈이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설법 핵심 '환희' '기쁨'



이현정의
불교와 스피치

⑥ 금강경 속 부처님 커뮤니케이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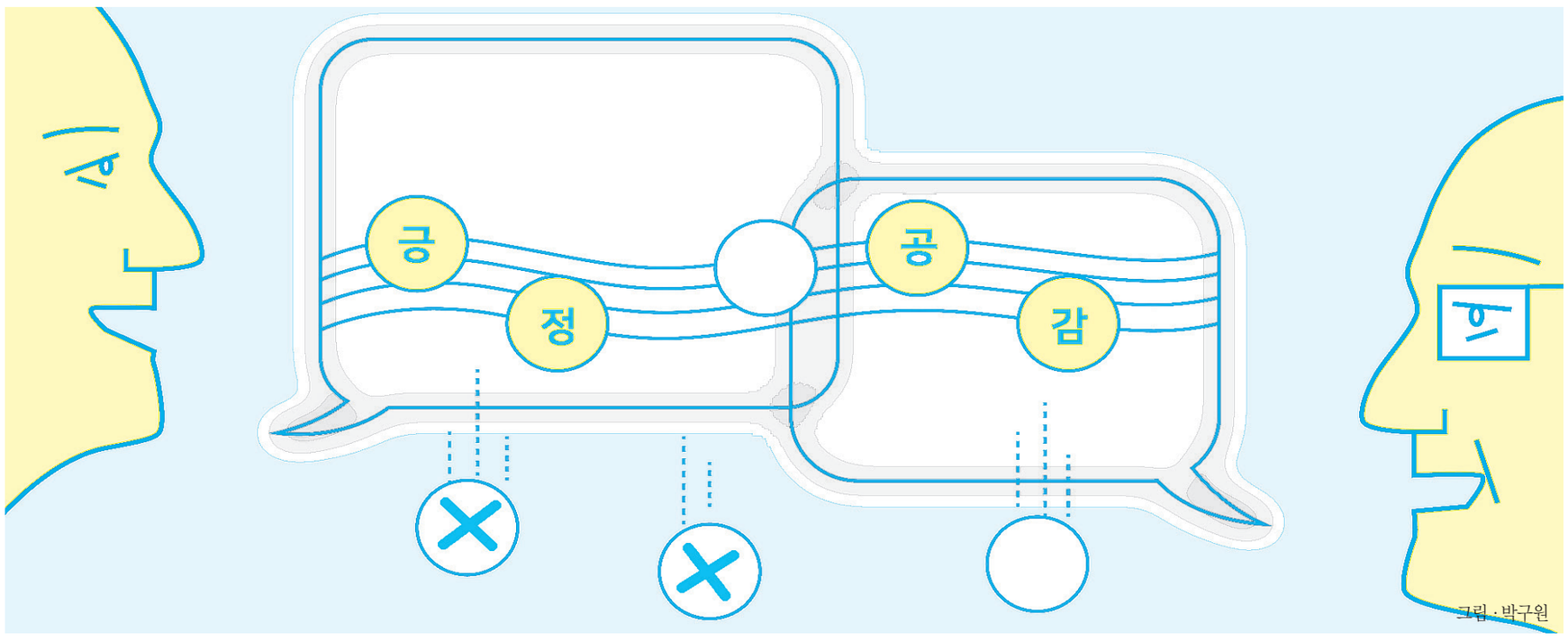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부처님은 비유의 대가이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근기에 맞는 설법, 즉 상대방이 알아들기 쉽게 하기 위한 자비스러운 마음 때문이다. 비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빨리 하도록 도와주며 흥미있는 이야기로 들리기 위한 장치다. 실제 설법에서도 이러한 비유와 사례를 많이 들려줘야 한다. 그 이유는 상대에 맞는 배려심에서 기인하는데, 목적은 누구나 알아듣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 말을 들어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감동받고 마음 속에서 환희와 기쁨이 솟아나야 하기 때문이다.

듣기 좋은 착한 말을 하라.
마치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그는 모든 시비의 논의를 없애고
속세에서 벗어나 편안해지리라.

-〈법구경(法句經)〉 '도장품(刀杖品)'-

또 부처님이 8정도에서 바른말을 말씀하신 데에는 말에 있어 경계해야함을 이른 것이다. 그 네 가지란 첫째가 거짓말, 둘째가 이간질, 셋째가 거친 말, 넷째가 쓸데없는 말이다. 말에 대한 경계가 워낙 크다보니 아예 말을 금기시하는 이상한 견해가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말은 중요한 것이니 만큼 제대로 잘하면 현실적인 이득과 실리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이 한 말씀이라도 그것에 집착하거나 머무르면 안 된다고 했다.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의 말씀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거칠게 말씀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따른 전달은 있으되, 그것에 어떤 틀을 만들거나 형상을 지어놓지 말라는 당부가 여러 번 강조된다.

언로를 틔워야 순환이 되고 그래야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은 곧 부처님이 표현한 스피치로 전달된다. 부처님은 팔정도로서 살아가도록 말씀했다. 우리가 팔정도로 살아갈 때 인연 고리에 매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듯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포교활동은 팔정도와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듯이 내가 하는 말 한 마디는 일파만파로 주파수와 에너지가 되어 퍼져나간다. 따라서 자신의 잘난 척을 위해, 드러내기 위한 표현과 의도적인 신도수 늘리기 등의 목적으로는 포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만 생길 수 있다. 포교의 선순환은 자기 기도와 자기 수행으로부터 우러나온 전달스피치에서 시작된다. 말하는 자의 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자비심이 드러나는 여러 종류의 비유는 그야말로 2600년 전이라는 세월을 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비유 자체로서도 충분한 교리적 품격이 느껴지며 시적인 가치도 빛이 난다. 이런 비유로 인해 우리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곧바로 기억으로 저장되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생명력이 긴 이유도 바로 비유의 힘이다. 비유에 의한 이미지는 공감의 힘으로 작용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공감력을 던져줄 수 있다. 서로 통하는 의미로서 비유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다음은 〈금강경〉에 나오는 비유의 몇몇 대목을 제시한다.

- 허공의 끝없음을 보여주며 무주상보시의 무한한 복을 비유해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 지를 물으신다.(4분)

-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말씀까지도 버리라는 과감성을 보여준다. 뗏목은 도강 후에는 버리듯 부처님의 설법도 버릴 수 있는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은 당연하다.(6분)

-삼천대천세계라는 표현은 무한우주 그 이상을 비유, 그러한 세계에 칠보의 보석으로 가득 채운다는 비유는 사람의 탐심으로, 이러한 사람의 복덕이 많겠는지 비유로 묻는다.(8분)

-깨쳤다라는 것은 드러낼 일이 아니며 어리석은 일이라는 비유를, 여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다라고 했다.(10분)

-마음이 곧 불국토임을 비유한 것으로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대목이다.(10분)

비유 · 이해 통한 쉬운설법
말 속의 '덕성' '인품' 강조
긍정의 새 에너지로 전환

-엄청나게 큰 수미산의 왕은 빈 마음으로 커진 것으로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비유했다.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10분)

-'항하의 모래 수'에 대한 비유. 그 모래 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 이정도면 엄청난데 거기에 칠보를 가득채운다고 하며 한층 더 발전된 비유를 보여준다. 비유의 단계가 점진적으로 강해진다.(11분)

-대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비유로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추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14분)

- 삼천대천세계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비유하는데, 그 큰 우주를 잘게 부수는 행위도 비유이다. 그리고 그 부숴서 나온 티끌... 이것도 엄청난 비유의 단계를 표현한다.(30분)

- 일체 모든 유위법이란 나의 분별, 망상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다고 비유한다. 일체 허망함을 알고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32분)

이러한 부처님의 비유의 표현은 반복되는 것도 있고, 응축되어 나타나는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되, 그 비유의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한의 무한, 또 무한 등으로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비유의 정도는 문학적 표현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상당히 시각적이다. 무한이라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상상하게 하면서도 그 상상을 나름대로 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 그 크기의 무한대, 그 무한대를 잘게 부순 미진들까지,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쥐락펴락하며 키우고 줄이고 어마어마한 광속도를 연상하는 천문학적 연출과 양자물리학적 시야를 무궁무진하고 자유자재로 연결시키는 디지털 그 너머의 초심성과학을 열어준다.

대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불교경전의 대부분은 온통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방적인 강요나 명령, 연설이 아니다. 상대방의 질문을 듣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부처님의 독특한 설법스타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설한 게 없다' 라고 못 박았다. 대화는 상대방과의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로의 관계를 지속시켜나가는 일이다. 가까울수록 함부로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제자에 의한 질문으로 법이 설해진다. 그 질문을 하는 제자는 몰라서나 궁금해서가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말법시대 사람들을 위해 질문을 과감히 대신 한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수보리존자가 1250인을 대표해서 질문을 올린다. 수보리존자는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 , 그리고 '공양을 받을만한 자들 가운데서 으뜸' 이라고 부처님께서 칭해주셨다. '공에 대해 잘 아는 이' 는 중국에서 후대에 '공' 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평화롭게 머무는 자' 라는 의미로 봐서, 불멸 후 법을 두고 다툼과 논쟁이 극심했던 〈금강경〉이 결집될 당시를 떠올릴 수 있다. 즉 싸우지 않는 자, 평화의 사도, 자비의 상징인 수보리를 등장시킨 이유이다.

이렇듯 수보리와 부처님 간의 아름다운 대화의 전 과정이 평화롭게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 〈금강경〉의 안심법문이다. 수보리의 대승적 차원의 질문과 부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하신 답변은 모두가 다 평화롭고 자비로움 그 자체이다. 수보리와 부처님의 질문과 대답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아름다운 만남과 대화의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금강경〉은 한없이 평화롭고 자비로운 경전이다.

실제로 대화는 두뇌발달에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두뇌학에 의하면, 치매예방은 물론이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 상상력을 유지하고 지식정보를 간직할 수 있는 전전두엽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대화' 를 꼽는다. 대화는 사람 간의 공감능력을 키워주며, 교감과 교류로 상호연결, 지식의 정보전달, 몸과 마음의 일체성과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아름다운 대화를 보면서 자비의 설법을 깊숙이 느껴야 한다.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부처님

부처님은 온 우주의 모든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선언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며 확고한 불성을 선언했다. 아무리 말세라 해도, 선근을 심은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금강경〉을 독송하고 마음을 내면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는다는 문구들이 많다. 결국 성불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려주고 있다. 〈금강경〉은 현세적으로도 복 받는 방법, 재앙소멸을 말해주는 긍정의 경전이다. 누구나 깨칠 수 있고 더 이상 중생이 아님을 알라고 해주는 메시지다. 최고의 대안, 희망, 동기부여는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는 말씀으로 가슴 벅차게 전해진다. 〈불교스피치 전문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조동종 사상으로 선종 집대성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㉑ 각랑 도성(覺浪 道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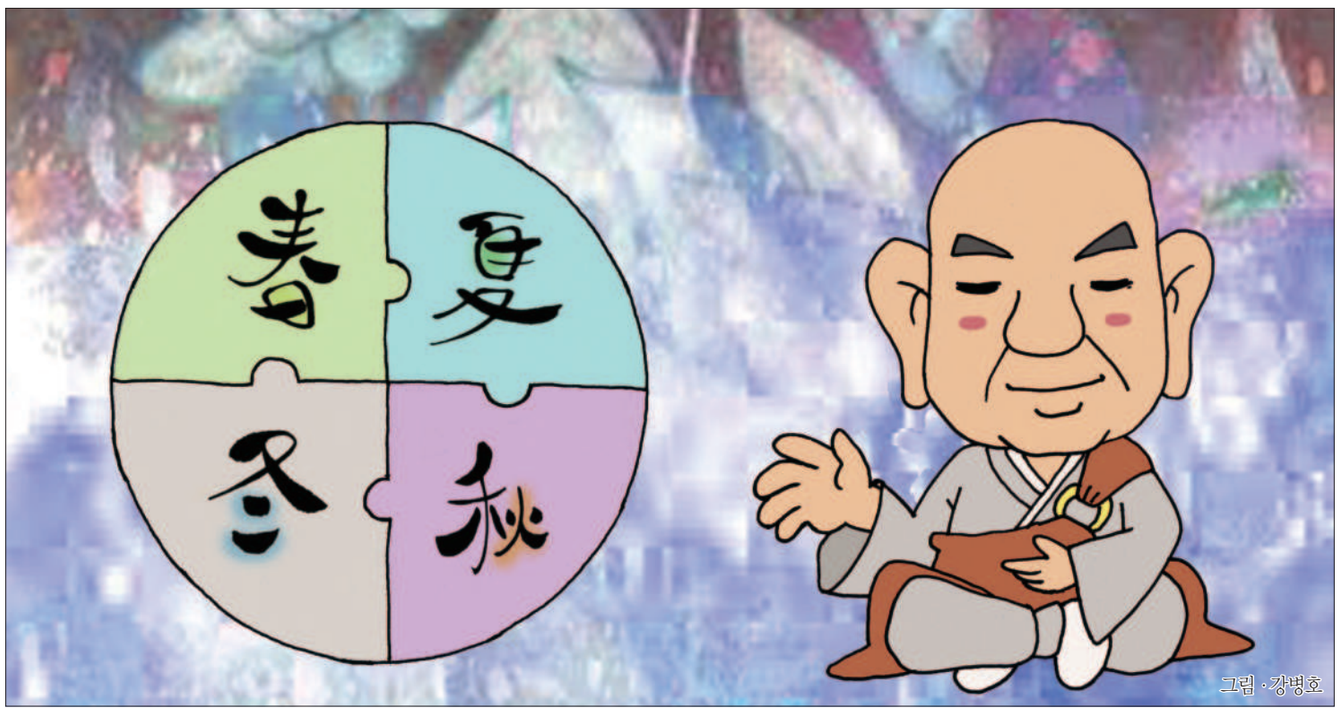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송대 이후 중국 선종의 흐름은 선교일치 선정일치 특히 삼교일치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선종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는 시대가 지니고 있었던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수 · 당의 찬란했던 불교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중국인들은 새로운 관점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세우고자 했다. 특히 송대로 접어들면서 신유학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였고, 이때 불교계도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곧 삼교일치라는 새로운 사상적 융합을 주장했다. 이후 송 · 명 · 원 · 청대를 거치면서 불교역사에서 이름을 떨친 대부분의 고승들은 모두 삼교일치를 주장했다. 명말의 고승인 각랑 도성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불일치의 사상적 집대성을 이룩한 선사이다. 또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동원하는 등 동서분주하면서 쇠락해가는 명나라를 지켜내는 데 평생을 바쳤던 인물이기도 하다.

각랑 도성(覺浪 道盛 · 1592~1659)은 명나라 말엽 조동종의 선승이며, 조동종의 사상으로 선종을 집대성한 인물로서 별호는 장인(杖人)이다. 속성은 장(張)씨이고 복건성의 포성(浦城)인이다. 19세에 출가했으며, 명대 만력 44년(1616) 강서동암(江西董岩)에 주하는 무명 혜경(無明 慧經 · 1548~1618, 명나라 말엽 조동종의 승려)선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다가 구족계를 받았다. 오래지 않아서 그는 또 무명 혜경(無明 慧經)의 제자인 원경(元鏡)문하에서 선법을 배웠다. 득법 후 강남 각지를 유역하면서 40여 년 동안 선법을 전법했다. 그는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즉 불교경전 어록 및 유학 노장학 등 내외에 관한 백여 종의 책을 편찬했다. 이외도 그의 제자 대성(大成), 대기(大奇)가 집성한 〈천계각랑성선사어록(天界覺浪盛禪師語錄)〉12권, 대성, 대준(大峻)이 편찬한 〈천계각랑성선사전집(天界覺浪盛禪師全集)〉 33권, 진단충(陳丹衷), 모찬(毛燦) 등이 편집한 〈장인수집(杖人隨集)〉 2권, 〈천계각랑성선사가화어록(天界覺浪盛禪師嘉禾語錄)〉 1권 등이 있다. 또 법제자가 27인이나 된다고 하며, 특히 명말 난세를 피해서 그에게 계를 받은 명사제자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는 명나라 유민이었는데, 조동종의 선사로서 유가의 색채를 농후하게 지닌 인물이다. 그는 유가로써 종(宗)을 삼아서 도교와 불교의 회통을 주장하면서, 삼교회통을 실현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또 그는 명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애국정신이 충만했고, 명말 청초 선종의 쇠락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명나라 유민으로 항청(抗淸)의 기치를 들었던 선사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행동은 그가 집대성한 저술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그의 다작 가운데 하나인 시작(詩作)에 보면 이윤(伊尹), 관중(管仲), 장량(張良), 제갈량(諸葛亮) 등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역사에서 군주가 무능력했거나, 혹은 망하고 쇄락해가는 나라를 도와서 일으킨 현신(賢臣)들로 묘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도 아마 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러한 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명 · 청(明 · 淸)사이에 많은 사대부들이 그를 따라서 출가를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대부들이 앞을 다투어 그의 저작에 서를 쓰기도 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명나라 때 관료 및 청나라 신 관료 및 귀족들도 포함되어있다.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많은 반청(反淸)인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반은 의사이고, 반은 승이 되었다(半爲義士半爲僧)"고 했는데, 사실은 의사(義士)와 승(僧)은 왕왕 합해서 일체(一體)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풍토에서 승려가 된 유명한 인물로는 진사인 예가경(倪嘉慶), 방이지(方以智), 전징지(錢澄之), 영남삼대가(嶺南三大家)의 한 사람이자 시인인 굴대균(屈大均)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각랑 도성의 제자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그가 당시 많은 유가의 사대부들에게 많은 존경과 추앙을 받은 방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진도고승(眞道高僧)'과 '충신열사(忠臣烈士)'라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그는 멸망해가는 명나라의 관(官) 군(軍) 민(民) 선(禪) 등을 일체로 보고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당시 명대의 많은 유명한 유학자 및 관료들이 명대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승려가 되기도 했다.

송대 이후의 '삼교일치' 새경향
각랑, 유불일치 사상적 집대성
선종으로 불교 각 종파 통섭해

유불합일 사상은 각랑 도성의 중심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진정한 유학은 불교를 피할 필요가 없고, 진정한 불교는 유교가 아닌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 특히 사대부들이 탄복해서 명망 있고 권세 있는 왕공대신들이 문을 두드려서 입실하였고,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각랑 도성은 불교를 집대성하였는데, 즉 불교의 각종 종파를 모아서 전서(全書)를 이루었으며, 곧 선종으로써 각 종파를 통섭했다. 그는 말하기를 "불보살 및 모든 조사들이 출세(出世)하신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시종 본말이 모두 깊고 심오한 것으로 가지가지의 경 · 률 · 논장 · 정토 · 지관 · 참회 등의 법으로 종파(宗派)를 시설한 것도, 또한 깊고 심오한 시종의 본말을 끊어 선종으로 섭해서 불조를 모아 대성(大成)을 이루었다. 이미 더 이상 나타낼 것이 없다"고 했다. 즉 한 몸에 모든 것을 포함했다는 의미로서, 일체 불교의 실천수행 및 이론들을 모아서 하나의 선종에 모두 포함시켰다는 뜻이다. 또 그는 말하기를 "저 5경이 비록 하나의 전집이 되었지만, 시 · 서 · 예악 · 춘추도 또한 각각 본경에 전집이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함께 종문(宗門)의 조사를 모아서 달리 하나의 통(統)을 지어서 대전(大全)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곧 경(經) · 율(律) · 론(論) · 관(觀)도 또한 각각 통(統)이 있어서 하나의 전집을 만들었다. 저 선(禪)에는 스스로 오종(五宗)이 있어서 통경(統經)을 삼았고, 스스로 오교(五教)가 있어서 통율(統律)을 삼고, 스스로 오부(五部)가 있어서 통론(統論)을 삼았고, 스스로 오섭(五攝)이 있어서 통(統)을 삼았다. 그러나 나의 경(經) · 율(律) · 논(論) · 선(禪) · 정(淨) 등은 불자(佛者)의 대통(大統)이고, 바로 저 시(詩) · 서(書) · 예(禮) · 이(易) · 춘추(春秋)는 유교의 대통(大統)이다. 경 · 율 · 논 · 선 · 정 등은 각각 통기(統紀)가 없다. … 곧 제당(諸堂)에서 성인을 선택하고, … 고로 내가 조도(祖圖)를 모아서 만들었으니, 곧 경 · 율 · 논 · 정 · 지관 · 참회법 등을 알아서, 다 마땅히 각각 그 종(宗)을 모아서 대전(大全)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즉 그는 여기서 경 · 율 · 논 · 정(淨) · 선 등에 또한 각자 통(統)이 있다고 여겼다. 다만 그것들은 소통(小統)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소통(小統)은 반드시 대통(大統) 가운데로 돌아가야 하고, 선성장(選聖場 · 성인을 선택하는 장소)의 총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大統)은 반드시 소통(小統)을 바탕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서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여겼다. 때문에 반드시 '대통'은 '소통'이 승인하는 기초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대통과 소통의 관계를 사계절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역시 선종의 지위를 우위에 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회통의 최후를 모두 조동종으로 회귀시켰는데, 곧 조동종으로 선종 오종의 종지를 삼았다.

그는 또 경 · 율 · 논 · 관 · 선을 일세통사시(一歲統四時)의 비유로 오가(五家)를 비교해서 오종(五宗)간의 통섭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즉 경은 곧 발연(勃然 · 무성 왕성한 것) 개발하는 것이 봄과 같고 율은 곧 찬연부진(燦然敷陳 · 찬란하고 풍성하게 펼쳐진 것)한 여름과 같고, 논은 곧 늠연정핵(凜然精覈 · 매우 위엄이 있고 엄하고 정교하다)한 가을과 같고, 관(觀)은 곧 명연청철(冥然淸徹 ·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다)과 같은 겨울과 같고, 선은 곧 혼연통흡(渾然通洽 · 혼연해서 잘 통한다)해서 마치 세월을 말없이 운용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비교로써 선과 기타 '소통'과 차별을 두었으며, 동시에 선을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지고무상(至高無上)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는 선종의 오대 종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였는데, 곧 "오직 선종으로 비교하자면, 위앙종은 곧 봄의 생장(生長.生育)과 같고, 임제종은 곧 여름의 발로(發露 · 분명하게 드러내다)와 같고, 운문종은 곧 가을의 엄격함과 같고, 법안종은 곧 겨울의 맑고 깨끗한 것과 같고, 조동종은 곧 사계절을 통화(統化)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대충 비교한 것으로 이와 같이 섭수하고 절복(折服)했을 뿐이다. 어찌 위앙 임제 조동 운문 법안의 종지에 우열과 같고 다름이 있겠는가?"라고 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가 집대성한 사상은 곧 선종을 통해서 불교 전체를 회귀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특히 선종의 가운데서도 조동종으로 선종 오가를 통섭하고, 최후에는 조동종으로 일체불교를 통섭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사실 그의 집대성의 목적은 우선 선종을 우위에 두고, 마지막에는 조동종을 가장 우위에 두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명말 청초의 불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당시 종파간의 반목 모순 투쟁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의 중국선종은 오가 중에서 3가가 이미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춘지가 오래 되었고, 오로지 임제종과 조동종만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조금 더 역사를 소급해 보면, 마조 도일의 계통인 홍주종에서 임제종이 발생을 하였고, 석두 희천의 계통인 석두종에서 조동종이 발생되면서, 이 두 종파는 장기간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면서 화합을 하지 못했다. 이미 명말 청초에 이르러서는 양가의 투쟁은 매우 격렬하였다고 전해진다.

청초에 임제종의 승려인 감박 성총(憨璞 性聰), 옥림 통수(玉林 通琇), 공계 행삼(筇溪 行森), 목진 도민(木陳 道忞) 등은 순치황제의 부름을 받고, 참선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정도로 자주 황궁을 출입했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결과로 황제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면서 임제종의 지위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조동종은 자연히 임제종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임제종이 정치세력의 외호를 받으면서 조동종은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 예로서 선권사(善權寺)를 놓고 장기간 투쟁 중에 보인 임제종 승려들의 태도를 보면 더욱더 선명해진다. 완전히 불교에서 주장하는 육화(六和)정신을 위배하는 행동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조동종은 정치상에서 외호를 받지 못했지만, 다만 반대로 사상적으로 반격을 할 수는 있었다. 때문에 각랑 도성은 조동종으로 전체 선종을 통섭해서 일체 불교를 집대성한 것도, 이러한 당시의 환경을 극복 내지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로, 혹은 임제종을 반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동국대 강사〉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외교석상서도 '주몽 외교' 공식 언급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㉑ 한류를 향한 뜨거운 관심

2020년도는 한 · 미얀마 수교 45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이다. 한국과 미얀마는 식민지 시기, 민주화시기와 같은 역사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6.25전쟁, 민주화운동시절과 같이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친구'와 같은 사이이다. 우리나라가 6.25전쟁으로 힘들 당시, 미얀마 정부는 5만달러 규모의 쌀을 보내줬다. 미얀마 민주화 인사들이 한국으로 망명했을 때,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은 양국인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미얀마에 유학을 가기 전, 한국에 있던 미얀마 유학생 친구들에게 "미얀마 국민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한국 사람인 나에게 기분이 좋으라고 해주는 일종의 립서비스라고 생각했다. 미얀마 유학생활을 하면서 미얀마 사람들은 불자(佛者)답게 진실을 담지 않은 말은 잘 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곤국제공항에 내려서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타러 가는데 "은서처럼 이쁘다! 택시 타러오세요!"라며 택시 기사 아저씨들 입에서 '은서'라는 가을동화 주인공인 송혜교의 이름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경험은 현재까지도 잊을 수 없다.

미얀마 사람들과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첫 주제는 '한국 드라마'이다. "구준표(드라마 '꽃보다 남자' 극중 이름) 알아요?" "송송(송중기-송혜교)커플이 헤어져서 마음이 아파요." "도깨비 드라마 잊을 수 없어요" "송일국 주몽 멋있어요" 등등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와 한국 배우들의 프로필을 한국인인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한국의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각 미디어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전달한다. 한국 연예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면 한국 뉴스가 보도 된지 몇 시간 후면 미얀마 미디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미얀마어로 서술된 기사가 뜰 정도이다. 몇 년 전, 미얀마 양곤에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그룹이 와서 공연을 했을 때 VIP티켓은 몇십만원이 웃도는 가격으로 암표가 팔리기도 했다. 미얀마 일반 근로자들의 월급이 20-30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다.



한 · 미얀마 수교 45주년을 기념해 주한미얀마대사관은 공식행사로 한국 사찰음식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하게도 했다.


미얀마 인기 아이돌그룹 '프로젝트k' 한국연수 모습.

올해는 한 · 미얀마 수교 45주년
미얀마, 한국 문화 관심 최 고조
드라마 · 음악 등 연령 불문 사랑
한 · 아세아 정상 회담 결과물로
미얀마 연예인들 한국에 연수도



미얀마 국영방송서 제작한 한국드라마 홍보 포스터.

한 · 미얀마 외교서도 한류 언급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은 미얀마가 민주화가 되기 전, 2013년도 평창 동계스페셜 올림픽 참석차 한국에 방한한적이 있다. 한국 · 미얀마와 관계가 있는 연예인들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 한국 측 연예인 참석자로는 '채정안, 송일국, 김효진, 이영애, 안재욱' 이었다. 채정안 배우는 '커피프린스 1호점', 송일국 배우는 '주몽'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미얀마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또한 두 배우는 2010년과 2012년 '미얀마-한국 영화제' 홍보대사로 미얀마에 방문했던 적이 있다.

송일국 배우가 출연했던 '주몽'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단히 인기가 좋았다. 201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의 만달레이 공연에서 주빈으로 참석했던 조민마웅 주지사는 '주몽 디플로머시(주몽 외교)'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전할 정도였다.

김효진 배우는 결혼식 축의금 전액을 미얀마 아이들 학교 건립에 기부한 인연으로 초청되었다. 이영애 배우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장금이'로 미얀마에서 송일국 배우와 같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은 이영애 배우와 만찬에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가장 관심 있게 봤다.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한 관심을 표현했다.

안재욱 배우는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좋아하는 한국 배우여서 초청되었다.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안재욱 배우의 팬이 된 것에는 슬픈 가족사가 기반한다.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은 2살 때 암살당했고, 둘째 오빠는 연못에 빠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7살 때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야 했다. 안재욱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다가 아버지와 오빠의 모습이 보여 좋아하게 되었다. 한국에 방문하면 안재욱 배우를 실제로 보고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와 닮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팬이었다.

또한 주미얀마한국대사인 이상화 대사는 2018년도 1월에 부임한 이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윈 민 대통령을 비롯하여 연방장관들을 만나면 빠짐없이 미얀마 국민들의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음식등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자신의 기고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국 문화를 접한 미얀마 젊은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졌고, 한국 유학과 취업으로 그리고 한국 브랜드 소비 등으로 점점 한국과 자신의 삶이 밀접해지고 있다.

한 · 아세안 정상회담 후 'Project-k' 연수도

코로나가 터지기 일년 전, 한국과 미얀마의 정상들은 일 년에 두 번을 만날 만큼 돈독했다. 2019년 11월 부산에서 한 · 아세안정상회담이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의 정상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 · 미얀마의 정상회담에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은 K팝을 기반으로 미얀마에서 인기가 많은 'Project-k' 그룹의 한국 연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했다. Project-k는 한국에서 열렸던 '세계거리문화축제'에서 2등을 수상한 후 미얀마 연예계에 역으로 데뷔한 그룹이다. K팝 형태의 음악과 춤에 미얀마 전통 춤을 가미하여 미얀마의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이다.

작년 정상회담의 결과로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문화적 협력을 위해 'Project-k'의 한국연수가 지난 9월 한달 동안 진행되었다. 'Project-k'는 한국의 기획사에서 노래와 춤과 같은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연수가 진행되었다. 이번 방문은 한 ·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얀마 현지 한국기업인 포스코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멈추게 한 코로나19 역병 도 한류라는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와 음악만 미얀마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올 9월에는 한 · 미얀마 수교 45주년을 맞아 불교국가인 미얀마에 한국의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제1회 한국 사찰음식 소개전'이 페이스북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날 행사는 이상화 주미얀마한국대사, 뚜라우아웅 꼬 미얀마 종교문화부 장관, 미얀마 고승 시따구 스님과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주미얀마대사관에서 주최한 '한식 콘테스트'의 1~3등 우승자들이 여거 스님의 진행에 따라 사찰음식 만드는 것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미얀마 일레븐 미디어의 페이스북 생방송에는 약 21만명의 시청자들이 접속하여 볼 정도로 한국 사찰음식에 대한 미얀마 사람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미얀마에서 한류는 젊은 층 뿐만이 아니다. 연령과 성별과 직업을 뛰어넘어 미얀마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한류가 함께 하며 살아 숨 쉬고 있다. 아세안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인 미얀마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핵심에는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있다. '문화'를 공유하면 같은 '정서'를 갖게 되며, '마음'을 함께 하게 된다. 한국의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불교문화까지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존재할까? 한국의 정(情)과 같이 미얀마에는 딴요진이 있다. 문화를 통해 정(情)까지 통하는 미얀마와 한국의 눈부신 협력과 발전을 바란다.

〈양곤대 박사과정〉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전선간격 :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등간격 : 규격참조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안전인증 ISO 9001 인증기업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㊷ 대상과 경계

"여러분, 그대들이 만약 법에 맞는 견해를 얻으려면 남의 속임수에 당해서는 안 되느니라. 안으로든 밖으로든 만나면 그냥 죽여 버려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며 부모를 만나면 부모도 죽이며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 버려야 비로소 해탈을 얻을 수 있느니라. 어떤 경계에도 구속되지 않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하게 되어야 하느니라. 제방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찾아와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느니라. 산승은 이곳에서 처음부터 쳐버리느니라. 손에서 나오면 손으로 치고 입에서 나오면 입으로 치며 눈에서 나오면 눈으로 치나니 홀로 툭 튀어나온 사람은 누구 하나 없었느니라. 모두가 옛사람들의 쓸데없는 기틀의 경계에 놀아나고 있을 뿐이었느니라."

서산대사가 지은 〈선가구감〉에 임제가풍을 나타낸 말이 있다. "맨손에 단칼을 들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고 하였다. 바로 이 장에서 인용된 말인데, 부처와 조사는 물론 나한과 부모, 친척 권속까지 죽인다는 말이 나왔다. '법에 맞는 견해를 얻고자 할 때'라는 단서를 붙이고 한 말이지만 죽인다는 말이 등장하니 살벌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런 말은 선(禪)에서만 할 수 있다. 불교, 특히 선(禪)에서는 교조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서양종교와는 달리 교조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철저한 자기 독립이다. 〈임제록〉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이나 '무의도인(無依道人)'은 어떤 상황설정의 위치가 없다. 나와 상대되는 어떤 대상을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설적으로 부처를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닌 것이다.

'죽인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처나 조사에 대한 생각, 나한이나 부모 친척 권속에 대한 생각이 몽땅 끊어지면 죽여 버린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밖으로 객관 경계를 따라가 어떤 대상을 의식하게 된다면 이는 선(禪)이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의식이 멈춰진 것이 선(禪)이다. 의식이 멈춰지면 부처도 없고 찾을 것도 없다. 그냥 마음인데 부처와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나 이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 찾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이 부처'라 한 것이다. 선가에서 '마음이 곧 부처(卽心卽佛)'라는 말은 마조 도일(馬祖道一 · 709~788)이 처음 썼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스님이 마조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왜 마음이 부처라 하십니까?" 답하기를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울음을 그치고 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전등록〉에 나와 있는 말이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말이라고도 한다. 장님에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혹 눈을 수술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다. 그때는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달을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속에 우화한 토막이 나온다. 눈이 먼 장님이 지팡이 끝을 의지하여 자기 집을 나와 꽤 먼 길을 갔다. 눈이 멀어도 특이한 감각이 있어 지팡이로 더듬으며 천천히 길을 가는 수가 있었다. 먼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변이 생겼다. 장님의 눈이 번쩍 떠져 버린 것이다. 이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눈이 떠진 장님이 어리둥절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지팡이 끝으로 더듬어 올 때는 올 수가 있었는데 눈을 뜨고 난 후에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음의 눈을 뜨는 데는 망념이 걷히어야 한다. 번뇌에 덮여 있는 마음은 구름 낀 하늘과 같아 본래의 청명한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부처나 조사 혹은 아라한이나 부모를 의식하여 생각이 관념을 만들고 있으면 병든 눈이 허공의 꽃을 보는 것과 같이 된다 하였다. 그래서 임제는 버리라는 말을 죽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현실세계, 苦果 받는 緣因果의 반복



세상 속 경전읽기

㊷ 사제십육행상(四諦十六行相)

현실세계는 번뇌[惑]를 연(緣)으로, 신구의(身口意) 3업인(業因)을 지어, 고과(苦果)를 받는 혹업고[惑業苦, 곧 연인과(緣因果)]의 반복이다.

사제의 고집(苦集)은 '미계(迷界)인과[연기의 입장에서 본 범부의 삶]' 곧 유전(流轉)인과로, 표면적 현상인 고과(苦果)의 심층적 원인인 집인(集因)은 3애[三愛; 欲愛 · 有愛 · 無有愛] 또는 3독[三毒; 貪瞋痴], 한마디로 무명업(無明業)이라는 것이다.

사제의 멸도(滅道)는 '진리를 깨닫는 세계[悟界]의 인과' 곧 환멸(還滅)인과로 고를 멸[滅苦]하려면 중도인 8정도(正道), 한마디로 정견[正見, 明]을 닦는다. 이는 곧 수도증멸(修道證滅)하는 현성[賢聖; 현자와 성인]의 삶으로, 밝은 지혜를 연(緣)으로 청정한 행[淨行因]을 지어, 열반의 락과(樂果)를 얻는 것이다. 즉 범부의 혹업고를 현성의 명행락(明行樂)으로 바꾸는 것이다.

근본불교의 수증체계는 3현4선근[三賢四善根, 七方便]의 현위(賢位)를 거쳐, 사향사과(四向四果)의 성위(聖位)에 이르는 것이다.

삼현은 오정심관(五停心觀) · 별상념주(別相念住) · 총상념주(總相念住)이다. 오정심관은 거칠고 강한 5장애(障礙)의 정지(停止)를 위해 닦는 5관(觀)인, 부정 · 자비 · 인연 · 계분별 · 수식관(不淨 · 慈悲 · 因緣 · 界分別 · 數息觀)이다. 별상념주는 신 · 수 · 심 · 법(身 · 受 · 心 · 法)을 각각 부정 · 고 · 무상 · 무아(不淨 · 苦 · 無常 · 無我)라 별관하는 사념주관(四念住觀)이고, 총상념주는 사념주(四念住) 전체를 무상 · 고 · 공 · 무아라 총관한다.

4선근은 난 · 정 · 인 · 세제일법(煖 · 頂 · 忍 · 世第一法)이며, '견도무루지[見道無漏智; 견도 이상 성자의 번뇌 없는 지혜]를 발득(發得)할 선근'의 뜻이다. 4선근을 4행제(行諦)라고도 하는데, '사제(四諦)를 관할 때 각 4행상씩 총 16행상[四諦十六行相]'을 두루 거친다는 뜻이다.

〈초전법륜경〉에 고집멸도(苦集滅道)의 4행(四行)을 각각 3전(三轉)해 3전12행으로 설하였다. '이것은 고(苦), 고의 원인, 고의 소멸,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한 번 굴리고[初轉四行; 示轉], '고를 응당 알고[應知], 집을 응당 끊고[應斷], 멸을 응당 증명하고[應證], 도를 응당 닦아야 한다[應修]'로 2전[二轉四行; 勸轉]하고, '고를 이미 알고[已知], 집을 이미 끊고[已斷], 멸을 이미 증명하고[已證], 도를 이미 닦았다[已修]'로 3전[三轉四行; 證轉]하였다. 여기서 초전은 4선근의 세제일법에서 단혹[斷惑; 혹을 끊음]의 무간도(無間道)를 지나 증리[證理; 진리를 증명함]의 예류향[豫流向; 四向四果 聖位의 처음]에 들어가는 견도(見道), 2전은 예류과(果)에서 아라한향(阿羅漢向)에 걸친 수도[修道; 有學道의 漸修], 3전은 무학도[無學道; 阿羅漢果]에 해당한다. 〈구사론(俱舍論)〉 23권에 4성제를 관찰하여 16행상을 닦는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난선근[煖法]의 상태가 오래 지속하기 때문에 능히 4성제의 경계를 관(觀)하며, 16행상도 함께 닦는다. 고성제를 관하며 4행상을 닦으니, 1) 비상[非常; 5취온 등의 제법(諸法)은 생멸], 2) 고[苦; 변괴 핍박의 성질], 3) 공[空; 실체성 없음], 4) 비아[非我; 나 혹은 내 것이 아님], 집성제를 관하며 4행상을 닦으니, 5) 인[因; 혹업(惑業)은 고과(苦果)의 원인], 6) 집[集; 혹 · 업이 동등하게 결합], 7) 생[生; 고과를 상속케 함), 8) 연[緣; 고과의 조건], 멸성제를 관하며 4행상을 닦으니, 9) 멸[滅; 오취온의 상속이 다함], 10) 정[靜; 번뇌 없음], 11) 묘[妙; 일체 환난 없음], 12) 리[離; 고를 벗어남], 도성제를 관하며 4행상을 닦으니, 13) 도[道; 멸에 들어가는 길], 14) 여[如; 정리(正理)에 맞음], 15) 행[行; 열반으로 향함], 16) 출[出; 생사고를 결정코 뛰어넘음]이다."

〈阿毘達磨俱舍論 T1558_.29.0119b14–b19〉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깨침의 길 3

知 · 情 · 意 세 가지로 설법

붓다의 깨침은 언어의 길이 끊어진 종교적 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는 깨침의 세계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45년 동안 자신이 깨친 진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팔만대장경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경전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깨침의 세계가 언어를 넘어서있다고 하지만, 언어 이외에 그 소식을 전할 마땅한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직접 종교적 체험을 한 이들에게 언어는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붓다는 자신이 깨친 체험을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였다.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깨치고자 하는 마음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붓다의 깨침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원로 불교학자 강건기 교수는 〈부처님 생애〉라는 저서에서 붓다의 깨침을 지정의(知情意), 즉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지성과 감정, 의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먼저 붓다의 깨침을 감정적(情)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없는 기쁨'이라고 하였다. 불교식 표현을 빌린다면 이는 곧 법열(法悅), 즉 진리를 깨달은 기쁨이다. 마치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의 황홀한 감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물 안과는 너무도 다른 신세계와 만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저 '아!' 하는 감탄사만으로 충분하다. 붓다는 우물 밖 실재와의 만남에서 느낀 한없는 기쁨, 법열을 몇 주간 즐겼다고 한다.

깨침을 지성적(知)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 되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는 나와 남, 나와 세계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욕심내고(貪),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성을 내며(瞋) 어리석은(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삼독(三毒)에 찌든 중생들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깨침은 나와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깨지는 체험이다. 그렇게 되면 나와 남, 나와 세계가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된다. 깨침은 곧 '깨짐'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깨침을 의지적(意)인 측면에서 표현한다면 '자비로운 삶'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비는 나와 남, 나와 세계가 하나 되는 체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를 동체자비(同體慈悲)라고 한다. 너와 내가 한 몸(同體)이라는 실상을 깨치게 되면 저절로 자비를 실천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한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와 이웃이 먼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깨침은 자비와 사랑이 나오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공명(共鳴)이라는 단어가 있다. 글자 그대로 함께(共) 운다(鳴)는 뜻이다. 누군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우는 것이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공명현상은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 주파수가 맞을 때 일어난다고 한다. 예컨대 피아노 건반에서 '도' 음계를 치면서 입으로 '도' 소리를 함께 내면 손가락을 떼더라도 피아노에서는 계속 '도' 음이 울린다. 피아노와 내 입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서로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입에서 '도'가 아니라 '파'나 '솔' 소리를 낸다면 진동수가 맞지 않아 피아노에서 울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공명현상은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이 죽어갈 때 많은 이들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 마음의 주파수가 서로 맞았다는 뜻이 된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울었던 것이다.

깨침은 너와 나의 벽이 깨져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인 지혜의 샘에서 사랑과 자비의 샘물이 솟아 나온다. 진리의 세계, 깨침의 세계, 우물 밖의 세계가 이런 곳이라면 한없는 기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우리가 깨침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잎초찻잔, 연꽃초찻잔 Set

✻ 양초 보시 대행 ✻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 / 의사 / 약사 / 재력가
사업가 / 공무원 / 교수 / 회사원 등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김계숙 원장

◈1:1 집중관리
◈신뢰·정확한 정보
◈성사위주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알아차림에 머무는 것 '마음챙김'

명상書 톺아보기

존 카밧진 등의

'마음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

〈4〉 다른 앎의 방식



반추하는 마음에서 비켜서기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어제 일은 정말 역겨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우리는 흔히 신체적 비유를 통해 자신의 감정상태를 드러낸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은 감정의 저장소이자 감정이 보내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다. 기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느낀다. 또 토가 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처럼' 느낀다. 그만큼 신체적 표현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실감나게 전한다.

여기서 핵심은, 나의 몸이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지혜롭게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생각과 판단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몸의 메시지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존재 모드에 머물며 몸에서 느끼는 감각에 열리는 것이다.

몸의 감각을 제대로 알고 친숙해지며 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신체감각에 귀 기울일 때 즐겁든 불쾌하든 중립적이든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함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새로 알게 된다.

"세상 고민 혼자 다 진 것 같아."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한다. 많은 사람이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하는 말이다. 무거운 짐이 몸을 짓누르며 일상의 평범한 행동에도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앞서 1장에서 우울증의 해부학을 이야기 할 때 우울증에서 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보았다. 또 건포교 명상과 걷기 명상을 통해 우리가 평소 몸의 메시지를 담은 직접적 감각 경험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도 비로소 알았다. 이때 몸에 터 잡은 채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 순간의 신체감각에 열린다면 어떨까?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앞에는 풍성하고 다양한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앞서 말했듯 신체감각과 생각, 느낌, 행동이 함께 작용해 우울한 상태를 일으킨다. 여기서는 신체감각이 부정적 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을 알아보자. 당신이 한동안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침잠에서 깨자마자 당신이 가장 먼저 아는 것은 몸의 무거움과 피곤함, 통증일 것이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에너지가 바닥나 전날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더 피곤하다.

신체감각 외에 생각도 일어난다. '오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또 하루를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면서 좌절하고 슬퍼진다. 자신이 실망스럽다. 어떻게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천근만근 무거운 몸은 다시 침대에 눕고 만다. 이에 당신은 무기력한 생각을 몰아내려 한다. 이 생각에 함께 따라오는 느낌이 너무 싫기 때문이다. 활력이 바닥나는 일도 신물이 났다. '어쨌거나 일어나 움직여야 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좋을 게 없어.' 이렇게 속삭이며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일상의 바쁜 활동에 파묻힌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무기력한 느낌이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다.

앞서 신체감각, 생각, 느낌, 행동이 한데 뭉뚱그려 우울이라는 하강 소용돌이를 일으킴을 보았다. 앞의 사례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의 무거운 신체감각과 더불어 그에 '관한' 생각과 감정이 함께 일어났다. 생각과 감정은 무거운 신체감각을 더 무겁게 만들어 우리를 우울의 나락에 빠뜨린다.

이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직접적인 몸의 감각에 열린다면 어떨까? 앞서 우리는 현재 순간의 신체감각에 깨어날 때 몸의 메시지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걸으면 일상의 걷는 동작이 근육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몸의 감각에 익숙해져 직접적으로 알 때 강력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신체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아침잠에서 깬 순간의 경험이 즐겁든 불쾌하든 '모든' 순간과 더 현명하게 관계 맺을 수 있다.

직접 경험은 생각과 다르다

불행감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심리기재는 매우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악순환을 멈출 수 없는 건 아니다. 불행감을 일으키는 악순환에는 몸-생각, 생각-느낌, 느낌-몸 등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각각의 연결고리는 불행감이라는 악순환의 진행방향을 역전시키는 기회가 된다. 특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몸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불행감의 악순환에 틈을 낼 수 있다. 당장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자기 경험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지친 몸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음챙김이란 단지 대상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더 현명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란 점이다.

> "삶의 스트레스 피하는 안식처
> 매순간 접촉하는 몸에 집중해
> 삶과 연결된 심원한 자유 체험"

앞서 보았듯이 행위모드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와 '이름 붙이기'라는 렌즈로 세상을 본다. 평소처럼 자기 몸에 대해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아침잠에서 깨 무기력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몸 뿐만 아니라 삶의 잡다한 일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의 기울임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때 존재모드에 들어가 몸에 집중한다면 몸이 전하는 직접적인 감각에 열린다. 매순간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되,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알아차린다. 몸의 느낌에 관한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몸의 무거운 느낌이 안개 걷히듯 옅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 몸의 무거운 느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다. 부정적 생각으로 몸의 무거운 느낌을 키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무기력한 느낌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효과적으로 관계 맺는다.

마음챙김이란 알아차림에 자리를 잡고 머무는 것이다. 하늘은 거기에 떠가는 구름과 새, 변화무쌍한 날씨와 다르다. 마찬가지로 마음챙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다. 마음챙김은 새로운 앎의 방식인 동시에 새로운 존재의 방식이다. 마음챙김은 인간으로 태어난 누구나 가진 능력이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 누구나 알아차림이란 새로운 앎과 존재의 방식에 머무는 법을 연습할 수 있다. 또 알아차림은 그 자체로 삶의 스트레스를 피하는 안식처다. 행위 모드의 습관적이고 해로운 악순환과 우울의 먹구름에서 벗어나게 한다.

앞서 말했듯 마음의 행위모드와 그 생각 패턴은 존재모드가 가진 경험적 성질을 흐리게 만든다. 마음챙김을 수련하는 이유는 나에게 펼쳐지는 삶의 직접 경험과 매순간 접촉하기 위해서다. 이때 몸은 새로운 존재 방식을 터득하기에 적합한 영역이다. 무엇도 덧붙이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신체감각은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앎의 방식을 키우기에 좋은 출발점이다.

놀랍게도 언제 어디서도 자신의 몸에 마음챙김을 가져갈 수 있다. 다음의 간단한 실험을 통해 지금 앉는 자리에서 실험해 보자. 앉은 채로 자신의 손을 눈으로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자기 손의 미이지를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때 머릿속의 관찰자는 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를 안다. 하지만 손을 '직접' 아는 것은 아니다. 손에서 거리를 둔 채 손에 '관한' 생각을 떠올리는데 불과하다. 내 손의 모양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친구의 손보다 늙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손을 아는 방법도 있다.

손에서 느끼는 느낌은 손의 모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신의 손을 다양한 감각의 변화 패턴으로 경험한다. 누르는 감각, 따뜻하고 시원한 감각, 따끔거리는 감각, 무딘 감각 등 매순간 변화하는 다양한 감각 패턴을 손으로 경험한다.

이처럼 몸에 관한 생각과 몸의 감각을 직접 느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우리는 머리로 몸을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맞아, 여기 통증이 있고 저기 가려움이 있군. 어떻게 좀 해야겠어." 그러나 이와 다른 접근법도 있다. 지금 바로 몸속으로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다. 몸을 알아차리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몸을 직접 경험할 때 알게 되는 것

행위모드에서 존재모드로 이동하는 것은 만성적인 불행감에 빠졌을 때 중요하다. 자기를 비난하는 부정적 생각은 매우 쉽게 우리를 우울의 나락에 빠뜨린다. 이때 몸에 관한 생각에 끌리지 않고 온전한 알아차림으로 몸에 머문다면 몸과의 관계에서, 더 넓게는 삶 전체와의 관계에서 심원한 자유를 경험한다.

손에 마음챙김을 가져가는 간단한 실험을 몸 전체로 확장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울이는 주의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껏 삶의 대부분 시간을 머릿속에서 살았다면 이제 몸 전체를 알아차리며 산다. 우리 저자들이 제공하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가 있다. 바로 바디스캔이라는 명상수련이다.

바디스캔은 누워서하는 명상수련으로 참가자들은 최소 2주 동안 매일, 수련 안내 음성에 따라 집에서 바디스캔을 수련한다.

바디스캔은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몸의 각 부분에 차례대로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다. 이를 통해 현재 순간 자신의 몸과 흥미롭고 친밀하며 따뜻한 관계를 맺는다. 몸의 각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다. 이런 이유로 호흡을 도구삼아 몸의 각 부위에 알아차림을 가져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호흡이 실제로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고 상상하며 해당부위를 직접 경험하고 느끼며 안다. 지금 바로 안내음성에 따라 바디스캔을 수련해보자. 지금 당장 어려우면 나중에 해도 좋다.

이기 뭣꼬?!

이거요?! 2m 멀리서 작은 염불에도 소리를 엄청! 장엄 청아 하게 만들어 내 귀를 적셔주는 특수마이크구요! 시중에는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이며 이 글은 법적증서랍니다.

뻥치는거 아니가? 판단력이 덜어지면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시설전 법당서 견본 테스트시 추호라도 다르면 그냥 쫓겨갈텐데.... 누구 망신? 누구 손해? 일까요?!

몇달전 시설했는데 또 무슨 시설이고? 보살의 말에 태고종 스님 왈..... 하아! 시끄럽다! 제 한번만 잘 지내도 이런거 몇배 뽑는다 사장님! 신경쓰지 말고 퍼떡! 해주이소!

▣ 평생을 염불속에 살다 염불속에 사라지는 염불인생들에게 뭣? 이 가장 중헌디?! ....

오직! 소리 구경 조건으로만 신청을 하시면 반드시! 그 부근을 지날 때에만 방문하여 초간단 견본으로 귀법당 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성능차이 확인, 특히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장엄한 염불소리 반드시 확인.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옥천사
• 주 지 : 도륜 원암
• 주 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189번지
• 승 번 : 081-0518

귀 종단과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16호 | A15 | 전면광고

어른을 존경하고 어진 이를 받들며
가르침을 받으면 오래 살고 아름다워지며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진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G N
손도사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배우자 구함
●남61세 경북
●직업 : 철학교육 · 교수
●전원주택에 거주할 분
●여성은 '거짓이 없는' 여성분
●문자주세요
010-4014-8822

비 돈!!들어오는 법
◉◉ 치우천왕 ◉◉
빨간속옷
남녀 : 6만원 → 3만원
농협 352-0796-0696-03 배정민
010-4500-8234

"록명법 특강"
전원귀자(부동산횡재), 비재성, 청룡(횡재), 지배살, 파택살(돈빌려주면 못받음), 삼태성, 팔좌성(승진,합격운), 일해, 해신자(승소운), 급각살, 귀한자, 천혁살(죽음,중병운), 록귀척답(부귀명), 천합, 천왕(창업성공), 일좌천록(아내덕), 연귀일좌, 국인신(인덕, 인기)
010-7189-7674

• • •
행자승 구합니다.
비구50세 이하
포항 원진사
• • •
010-3517-6099

• • •
기도 부전스님
행자, 처사
구합니다
• • •
010-2078-9595

• • •
공양주 모십니다.
도심속 사찰
관음사
• • •
010-5736-1835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 • •
010-8721-2198

기도의 신
대주스님의 특수한 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비구·비구니 모집
3년 정진 도량인 무일선원 무문관에서 결원이 생긴 자리에 선착순 비구, 비구니 각 1명 모집합니다.
• 휴대폰 일절 사용 못함 •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 일종식, 묵언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무일선원 무문관
문의 : 054-771-835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탱화 배울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 희망소식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1일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09년 보이차 숙차(노동지 병차) "9978"[357g] 식약청 정식 통관제품



전통적인 맹해 차창의 7572 배방방식으로 오랜동안 보관하셔도 좋고, 바로 드셔도 그 맛과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한정수량 특별판매가
▶ 노동지 병차 [숙차(357g)] 1개 ····· 55,000원
▶ 노동지 7자 병차 [숙차(357g) x 7개] ····· 308,000원
■ 식품유형 : 단일침출차 (보이숙차) ■ 중량 : 357g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생산일자 : 2009년 1월 6일 ■ 제조원 : 안녕해만차업 유한책임공사
문의: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계좌번호: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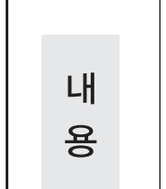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16호 | A16 | 전면광고

늙으면 모양이 변하여져서 마치 헌 수레와 같을 것이니 법만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지라 마땅히 힘써서 배워야 하리.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유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명 당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읍
- 누워서 들어왔다가 걸어서 나가는 암치유 명당
- 십승지(해발650미터)
- 전 1만평 / 주택(55평) / 옛집(25평)
- 평당 13만원

010-5758-76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 5천만원(가격절충)

010-5421-153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7천만원

010-5804-510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

010-6355-6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5층코너 상가주택 포교원 급 양도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내 최고요지 아파트 앞
- 평수 : 대지 264.5㎡, 연면적 762.99㎡ 제2종지역, 대리석건물, 점포6칸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상가임)
- 4층 : 주인세대 156.05㎡(47평), 방4칸, 화장실2, 넓은거실, 건물 수리완료 3층 포교원 : 156.05㎡(47평) 최신 불단조성, 종무소 큰방, 스님방, 실내 남녀화장실, 주방, 세면장, 도시가스 (단, 부처님, 탱화, 기타 법기물 일체는 양도에서 제외함)
- 참고사항 : 상가수입 득함, 주차장있음, 도시가스, 일조권, 조망권 최고, 주변 대학교, 중학교, 대형마트 생활편리
- 급매가격 : 7억 8천만원(스님 노환관계로) 금융융자 : 3억 5천만원, 상가보증금 5천만원

010-9011-723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창고형, 1층 공양간(방3개 화장실) 1층 방3개, 화장실, 3층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4990

오래된 암자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종교용지 912평,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시장, 학교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건물, 단청, 공원같은 암자, 둘레에 60년된 큰소나무 많음, 신도있고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동서울에서 1시간 가량
- 1억5천 안고 3억 합 4억5천

010-3535-7906

◈ ◈ ◈
천하 명당자리
환경 최고 전망
버스 마당까지 진입
산청군 단성면
◈ ◈ ◈

010-4492-3479

지리산 청정 사찰 안내

- 위치 : 지리산 산청군 중산리 청정지역
- 1200평 마당전체에 미륵부처님 약사여래부처님있음, 건물3동, 마당에 폭포, 방안에 편백나무 부착 되어있음, 주차장넓음
- 가액 : 7억(3억대출있음)

010-7104-16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천수천안사,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50만원
- 시설금 2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토 굴 안 내

- 위치 : 파주시 문산읍
- 대지 : 104평
- 건물 : 30평(법당, 9층탑)
- 가액 : 1억원
- 시설금 5천만원

010-8567-3667

도심 최고의 포교사찰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 2필지 200평 • 건물 : 법당 50평
- 제일요사체 100평, 제이요사체 50평
- 사찰운영 양호
- 대출 10억 가능

010-9759-7152

봉안당 장사시설 안내

- 중부권의 위치좋은 봉안당 운영 및 투자, 매도, 협의 제안
- 충청권 대전 경계에 위치한 봉안당을 운영중 입니다. 기존시설에서 수목장, 자연장등 앞·뒤 토지가 충분함.
- 매입비와 활성화를 위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자본력이 있는 단체나 추모시설 사업에 계획이 있는 사업체만 전화주세요.

010-9415-45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전원주택·사찰·요양원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수암로 1669
- 지방도로변 계획관리지역
- 대지 329평,전 421평, 임 385평
- 주택 34평, 황토방 1, 창고 50평
- 자연암반수 우물있음
- 가액 : 3억5천만원

010-3848-245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炎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 동해(www.향운암.kr) 상세한 상담 : 010-2873-3446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 가액 : 37억
-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 가액 : 3억 1천
-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010-5460-65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외 13필지
- 대지면적 : 약 81,090평
- 건축물면적 : 약 574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가액 : 70억

010-6342-75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지
- 총평수 : 756평(4필지, 종교부지포함), 법당 25평, 요사채 25평(조립판넬식)
- 가액 : 1억3천(상수도, 지하수)
- 마을에서 300m떨어져있음 (뒤에는 야산)

010-9504-7259

사 찰 안 내

◈ ◈ ◈
마당이 아주아주 넓은사찰
투자가치 100%
대출 9억안고 22억
◈ ◈ ◈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납골당용)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매수대금 분활상환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천시 중심가
- 대지 약 80평
- 법당 15평 한옥요사채 30평
- 수행과 포교 적합한 곳
- 가액 : 1억 5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478-3234

포교원(급)안내

◈ ◈ ◈
동대문구 왕산로
60평 11년차
◈ ◈ ◈

010-3714-101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 2층 65평
- 법당, 방3, 공양실
- 보증금 500, 월 35
- 권리금 2천만원

010-3715-269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일산 서구 버스 정류장 앞(마음포교당)
- 2층건물에 2층, 약50평
- 전세1천만원, 월세50만원
- 비품완비, 보시고 형편대로 상의
- 3년동안 운영하고 있음

031-923-5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 대지 : 405평
- 법당 20평, 산신당5평, 요사, 방5개, 건물5개, 화장실2개, 주차공간 많습니다.
- 가액 : 2억 8천
- 부동산 사절

010-7506-8604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빠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선신도 악신도 모든 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토론하는 중에 지난번에는 우리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한번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일요일 날은 우리가 거기부터 잠깐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오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는 나중에 되돌아올 때 얘기가 되겠죠. 오늘은 거기에서 잠시 잠깐 끊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생각해서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 지(地) 수(水) 화(化) 풍(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수화풍의 성질과 자기 무전자의 그 독특한 맛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만 살아 있다 뿐이지 모든 게 지수화풍이 움죽거리지 않고 침체돼 있는 상태에선 아마 암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수화풍이 제가끔들 살아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마는 서로 공존해서 우리 어떠한 걸 세우자고 예를 들어서 했다면, 그렇게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니까 지수화풍은 없어지고 말입니다, '공기' 로서의 능력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공기' 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천체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하나 같으면 그냥 능력이라고 해 뒀으면은 좋겠는데 왜 '공기' 라고 했을까 이겁니다. 모든 뭇 생명들을 소생케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공기' 라고 했던 거죠. 그 후에 이름을 지어서 붙였겠죠.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이름도 없이 그것으로써 무전자의 집단체를 이루었던 거죠. 무전자라 하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공기' 로서 전체 아니 닿는 데 없이 닿게 되는 향기와 같은, 에너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 유전자가 발생된 겁니다.

유전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무전자에서 유전자가 발생될 때는 수많은 그 생명들이 유체로서 보이지 않는 그 유전자의 발생이 온 우주에 확산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로부터 어떠한 것이 형성되었느냐. 유전자로부터 형성된 것이 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별성이 다르고 우리 몸뚱이가 다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별성이요, 그 또한 별성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차원에서 반짝거리면서 움죽거리는 것을 우리는 무전자에서 유전자가 발생됐다고 말할 수 있죠. 유전자가 모든 생명체들을 소생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전자의 생명에 의해서 그 체가 발생이 됐다면 수많은 별성들의 체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무슨 청와대가 있으면 국방부도 있고 그렇듯이, 그렇게 별성들이 발생되고 보니까 거기에서는 무전자의 능력으로써, 유전자의 묘법으로써 가지각색의 물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묘법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도 없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즉 말하자면 우리의 선 혼백이든지 악의 혼백이든지, 혼백을 만약에 유전자라고 한다면 차원에 따라서 그 유전자는 달라지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차원이 낮으면 낮은 유전자가 될 것이고 질이 높으면 높은 대로 유전자의 차원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나투면서 화(化)하면서 그 물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각체 각급의 그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떠한 모습으로써 그렇게 발생되는 그 유체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느냐. 별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별은 반드시 북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와 두 팔과 두 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개의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정부의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치인들로 하여금 모든 이 생명의, 즉 물질로서의 물체들을 생산해 냈던 거죠. 그런데 생산을 해내려 해서 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면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저렇게 생각한 거면 저렇게 모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묘하다는 거고 그것이 광대무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보니까 거기에서 또 갈라진 것은 물의 생명도, 흙의 생명도 독특하게 자기의 근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바람도 그런가 하면 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의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지수풍이 한데 합쳐져서 비벼졌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일어난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질척질척한 거와 같이 갖다 넣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가스가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 뜨거운 거기에서 아늑함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생명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광대무변하게 생명과 더불어 물질이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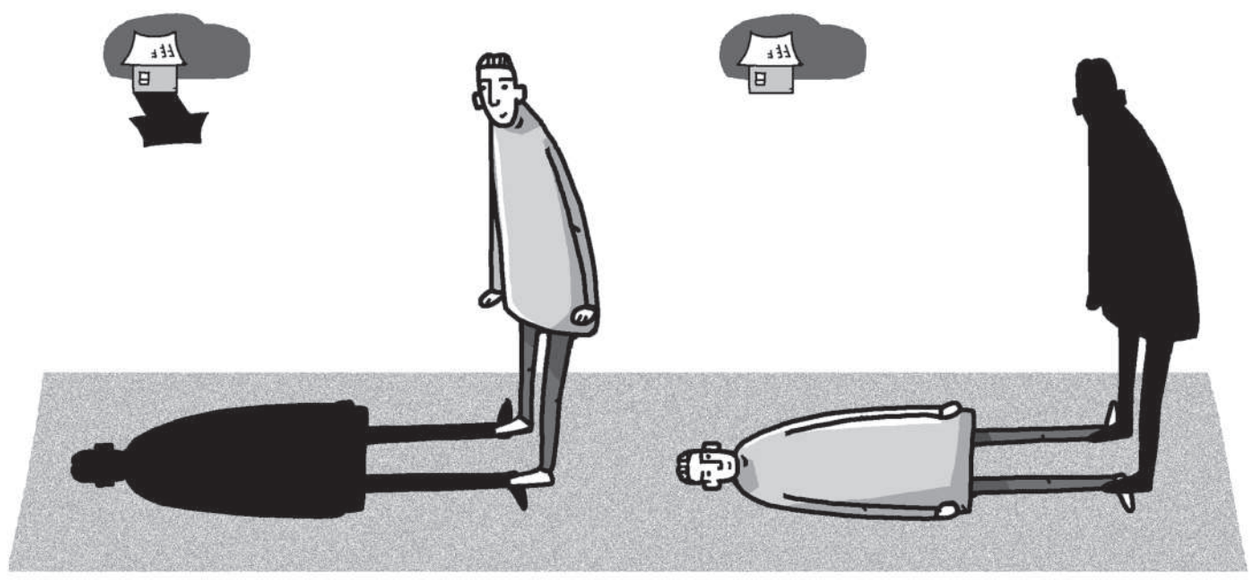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쨌든 지금 그걸로부터 여러 가지로 독특하게 물에서 사는 거는 물의 성질을 따르게 됐고 흙에서 사는 거는 흙의 성질을 따르게 됐고, 또 화해서 사는 생명은 화생으로서의 독특한 가짐가짐을 가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중의 생명들, 그 유전자가 암흑 속의 반딧불처럼 반짝거리면서 집단을 이룬 것도 역시 바람의 성질을 아주 독특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체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다음에 얘기하겠지마는,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독특한 맛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부터 났느냐는 이것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원숭이로부터 됐다는 사람, 곰으로부터 됐다는 사람, 공룡으로부터 됐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에 한 군데로 규정될 수가 없는 것이, 자기의 그 유전자의 진화력에 의해서 자꾸 구르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진화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마는 독특한 물의 생명의 그 근원을 가지고 있고, 흙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바람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 화함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한 자기의 본성은 그대로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비유해서 우리가 김가면 '김가다' 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가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그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각종 각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각종 각체들이 벌어지면서, 물에서 진화돼서 나온 것도 인간으로 됐고 흙에서도 인간이 됐고, 화해서 난 것이 전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해서 동물로 인간으로, 즉 말하자면 고등 동물까지 진화해서 올라왔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많은 진화의 모습을 각각 가졌으니 마음도 각각이요, 몸도, 모습도 각각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모습이 나와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연쇄적으로 진화해서 올라오는 그 자체를 현재에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올라온 것이, 바로 지금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개구리대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뱀이 뱀대로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도 고정됨이 없다는 얘기죠. 인간도 인간대로 고정됨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해서 진화하는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만이 자기 물질을, 자기 형상을 그대로 자아낼 수 있다는 그런 각자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물질과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써 이 모든 일체 만법의 만물만생이 전부 진화해서 고정됨이 없이 모습을 바꿔 감으로 해서 이렇게 광대무변하게 세상이 펼쳐졌다는 것을, 확산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머리로써 돌아가는 이 오신통을 넘어서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통 다섯 가지, 이게 지금 세상에 콤퓨타나 모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원한 자기의 무전자의 콤퓨타가 그렇게 무전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다섯 가지 요소가 다 자기한테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하나의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바로 그 다섯 가지 요소를 부리고 있습니다.

☞ A18면으로 계속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오신통 그 다섯 부하를 내가 부리느냐 말리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섯 가지에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할 때에 똑똑히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콤퓨타에 우리 인간이 말리고 있고 자유자재 못 합니다. 우리가 꼭 심부름을 해야만이 콤퓨타가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사기나 천체망원경이나 또는 무전기나 탐지기나 이런 것이 다섯 가지가 다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영원히 이 무전자의 유전자로, 무전자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그 유전자 바로 거기에 공(空)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거기에 공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연구해 낸 겁니다. 연구해 냈어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그건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하나를, 물질적으로 내놓지 않아도 천차만별로 바꾸어가면서 우리는 무전통신을 할 수 있고, 콤퓨타로 책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유전자의 모든 유체들의 마음들을 책정해서 알 수 있고, 거쳐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가에서 말하면 타심통(他心通)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속을 아는 건 숙명통(宿命通)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천이통(天耳通)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듣는 도리를 말하니 무전기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무전기와 더불어 다섯 가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때, 소유하고 있는 그 다섯 가지가 나의 부하라면, 다섯 부하라면 바로 내가 주인으로서 그 다섯 부하를 동시에 부리지마는 여러분은 그 다섯 부하들에게 오히려 말리고 있습니다. 말리느냐 부리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유린을 당하느냐 내가 부리고 있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세균이라는, 공중 세균, 흙의 세균, 물의 세균, 참 모든 이 세균들이 독특한 자기 근본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얼른 표현하자면 그러한 독특한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에서는 물대로 응용할 수 있고, 들에서는 들대로 응용할 수 있고, 흙에서는 흙대로 응용할 수 있고, 공중에선 공중대로 응용할 수가 있고, 바람이나 모든 걸 응용할 수가 있으니 하물며 우리가 나 하나 끌고 다니기야 식은 죽 먹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서도, 비유하건대 물에서 사는 생명들도 바로 그 유전자로 인해서 수만 개가 퍼지는데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쏘가리라는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모습을 빨리 편리하게 바꿔야 할 텐데도 쏘가리라는 모습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쏘가리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쏘가리의 마음에 달려 가지고는 자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그 의식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도대체 변화를 시키질 못합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게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고 무한정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완전히 계발을 못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 쏘가리의 모습을 백 년이고 천 년이고 버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진화를 못 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물질에 끄달리면서 의식적으로 자꾸자꾸 쌓아 온 그 생각들이 의식화돼 있다면은 그 차원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백 년이 가든 천 년이 가든 그건 그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깡통 간 데 깡통이 모이고, 금 간 데 금이 모이고, 넝마 간 데 넝마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참 광대무변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당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선 이렇게 대충 마무리를 하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을 하자면 왜 은하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치면 동맥 정맥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듯이 은하계도 인간의 몸체와 같이 삼각원형을 이루면서 그 물이 삼각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삼각형의 받침대는, 바로 애들이 이렇게 똥그랗게 원을 그리려면 콤파스로 이렇게 대고 그리게 되죠? 그런 거와 같이 받침대가 인간에게도 주어져 있는가 하면 그 은하계에도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무전자의 한자리에 삼각원형을 이룬 받침대라고 보겠습니다. 나는 시쳇말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한 사람들이 알아서 생각들 하세요. 허허, 믿든 안 믿든 그건 알아서들 할 거고요.

그래서 삼각원형을 이루면서 뒷받침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 지점에다 딱 찍어 놓고서 무전자의 받침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보이는 데의 받침대가 아닙니다. 무전자의 받침대, 즉 말하자면 백지가 있어야 글씨를 쓰듯이 받침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무전자의 받침대가 삼각원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비로소 유전자의 그 유체가 바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똑바로 궤도를 도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심이 없다면 똑바로 돌지를 못하고 미치광이 모양으로 돌 것입니다, 아마. 그런 거와 같이 그 은하계의 무리들도 그렇게 무전자로, 무전자의 받침대로 위에서 유전자가 그렇게 많은 그 모습들을 소생케 해 가지고, 유체를 형성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이 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가 다르고 이 세계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멀리 은하계는 아주 특별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것이 먼저 낳든 나중에 낳든 바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상태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억 년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에 태어나서 내가 그걸 안다면 바로 지금이 태초며 지금이 시작인 겁니다. 지금 모두가 생한 거다 이겁니다. 내가 그걸, 생한 걸 지금 알았으니까, 안 것이 뭐냐 하면은 억겁 전년서부터 내가 진화돼서 나왔다 할지라도 억겁 전년이 일 초도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억 년이라는 말,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생겨난 그 문제가, 무전자의 그 삼각원형을 이룬 자체가 바로 그 후에 참, 마음들의 그 빛을 내게 되었죠. 마음들의 빛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본다면 우리가 마음을 내지 않고는 지금 전기가 발전이 될 수도 없고 전기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또 전기가 들어올 수도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삼각원형에 의해서 은하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그 삼각원형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 태양도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태양은 언제, 북두칠성이 생기기 전에 생겼느냐? 아닙니다. 별성이, 그렇게 많은 별성이 생기고 참, 질서를 유지하고 다 그런 뒤에야 태양은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 달듯이 말입니다. 촛불을 켜다가 전기 달듯이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발전은 누가 했느냐. 그 유전자가 광대무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갈라져 나가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악한 것은 악한 데 쓰이는 칼이 될 것이고, 즉 말하자면 유전자의 그 진화력을 아주 못되게 쓰는 악령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부풀려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좋게 발전이 돼서, 유전자로 인해서 유체를 승화시키는 데는 무엇이든 아랑곳없이 무전자의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까지나 그 궤도를 올바르게 돌면서 생명체든지 생명체가 아니든지 남을 이익하게, 즉 말하자면 유체든지 무체든지 다 이익하게 이끌어 가지고 가면서 집단을 이뤄 갔다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또 집단체를 이끌어 가지고 가는 회사 사장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모습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서 수많은 그 생명체들을 소생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것들을 비유해서 보겠어요. 왜 세균이 나쁜 역할도 하고 좋은 역할도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 우리 인체 안에서도, 내 몸 안에서도 생명체들이, 지금 세균들이 있다고 봅시다. 이름을 세균이라 하지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의 분신인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타의에서 유전자가 들어왔다는 세균입니다. 자의에 있는 생명은 세균이 아닙니다. 나를 나쁘게, 인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 세균이지 인체를 이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잘못 돌아가면, 이 혹성의 사장이, 여러분이 다 혹성의 사장입니다. 사장이 잘못 생각을 한다면 이 인체의 유전자, 즉 말하자면 인체에 있는 생명들의 유전자들이 다 겉으로 노는 거예요. 그 사장이 잘못 생각하는 대로 파워를 일으키고 분단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타의에서 세균이 침입을 해서 들어올 때 막아 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몸뚱이는 여기저기 병이 들고, 파워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해서 집이 망가지는 거죠. (중략)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요것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비참하고 그러니까 산골에서 한 마을을 이루고 있으면서 참, 자기의 그 애절하고 괴로웁고 그런 것을 어디다 호소할 수가 없어서 그 돌에다 했습니다. 항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누구든지 아쉬움이 있으면 거기 가서 빌었습니다. 마음으로 호소하고 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가만히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마음들이, 자꾸 거기다가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거기 집중이 돼 가지곤 그냥 거기 전체가 한 집단이 돼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사람의 흔백이 하나냐 하면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기 그렇게 마음을 두고 호소를 하고 마음을 거기다 두었다면 내 혼이 거기도 있고, 내가 이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내가 어디에다가 집착을 하고 있으면 집착한 데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그냥 무분별하게 분별없이 그냥, 그저 그 혼은 열 개도 됐다 백 개도 됐다 만 개도 됐다가 천 개도 됐다가 하나도 됐다가 하면서 이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운 사람들은 알아서 고정되게 두지를 않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정되게 거기다가 아예 착을 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도 끼도 못하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그걸 업보라고 하고 그런 윤회의 걸림에 걸려서 세세생생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 돌아가죠. 생활에서도 많이 그렇게 돌아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단을 이룬 그것을 누가 모아 놨겠습니까? 그 한동네에서 모아 놨단 말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높은 유전자라면 별문제가 아닌데 차원이 낮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 거기다가 뭐를 안 갖다 놓으면 동네가 모두 야단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떡하죠? 처음에는 요만한 거 갖다 놔서 해결이 됐다면, 나중엔 큰 걸 갖다 놔야 하고 큰 걸 갖다 놓다가 안 됐으면 그것보다 더 큰 걸 갖다 놔야 하고, 이 지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하기 때문에 미신이 생긴 거지 사람이 미신 노릇을 안 한다면 어찌 미신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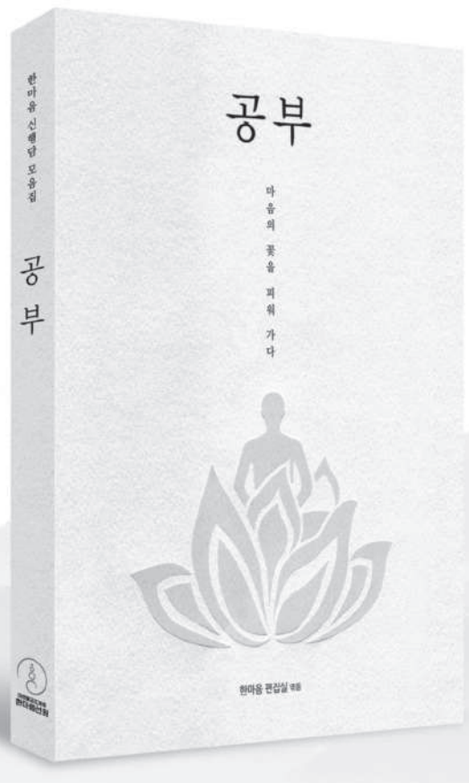
그래, 나중에는 그 동네에 가서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미신 짓을 하기 때문에 그 미신이 있는 거지, 당신네들이 미신 짓을 안 한다면 미신은 없을 것이다." 하고서 그것을 그냥 아예 팽개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못살게 만들어 놓느라고 그런다." 그럽디다. 그래도 떡도 해 놓지 말라고 그러고 모든 걸 아주 싹 없애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가 잘 살게 됐습니다. 오히려 편안케 말입니다.

그렇듯이 내 마음 가운데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모든 신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한 주인공에 있는 거지 어디 딴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두고요, 요다음에 그 유전자가 수없이 확산돼 가지고 그렇게 수없는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런 문제를 또 토론을 하십시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무한정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물질에 끄달리면서 의식적으로 자꾸자꾸 쌓아온 생각들이 의식화돼 있다면
그 차원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 법문은 1985년 11월 17일 정기법회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있는 그대로

공간과 시간을 주세요. 생각과 감정이 있는 그대로 있게 공간과 시간을 주세요. 마음이 저절로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공간과 시간을 주세요. 서로 이해하고 소통이 저절로 됩니다.

판단 없이 기대 없이 자신도 남들도 세상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공간과 시간을 주세요.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이 명상의 진수이며 의미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준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애씀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저 존재하고 그저 존재하게 두세요.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㉑ 문명기행– 카이로서 아부심벨까지

별이 있어 사막은 아름답다

드디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의 문명기행을 떠난다. 미국 갱스터랩의 선구자인 투팍(2PAC)의 '변화(Change)'라는 노래가 있다. 그 마지막에 홀로 독백하듯이 "어떤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Something's will never change)"라고 노래한다. 그 '어떤 것' 중 하나가 바로 스님들의 이웃종교 탐방도 들어갈 듯 하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우려와 걱정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문명의 발상지나 한때 세계를 지배한 제국들은 반드시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웃종교의 성지도 비교종교의 입장에서 한번 쯤은 가봐야 한다고 믿는다.

2018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혜국 스님과 함께하는 이집트 · 요르단 · 이스라엘 문명기행'을 50여 스님들과 함께했다.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도착해 우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가자지구 피라미드로 향했다.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을 건너 저 멀리 신기루인양 장엄한 피라미드가 우리를 맞는다.

피라미드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는 옥상에 올라 피라미드를 바라보며 고불식을 가졌다. 지도법사 혜국 스님께서 감격에 겨워 법문을 설하셨다.

"어려서 책으로만 보던 것을 이렇게 두 눈으로 바라보니 감동과 희열에 젖습니다. 순례는 가슴이 뛸 적에 와야지 다리가 후들거릴 때 오면 늦습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꿈이 아니라 바로 민중의 피와 땀이 서린 비원(悲願)의 산물이라고 믿습니다. 피라미드는 기나긴 깨달음의 여정이자 수행의 결정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라미드가 전하는 사막과 바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려오는 듯 하다. 그 시공을 뛰어넘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침묵의 세계를 피라미드 앞의 스핑크스가 있어 오늘 우리에게

'혜국 스님과 함께하는 이집트~ 문명기행'
가자지구 피라미드서 순례 고불식 봉행해
아부심벨 사원, 람세스 2세 동상에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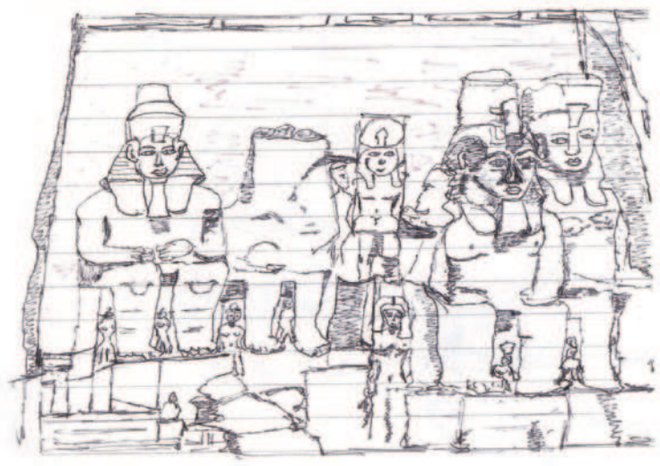
설법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서 밤새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리고 사막과 바람가운데 허공처럼 함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니, 내가 파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되어 천년 후를 꿈꾸며 살아가고 싶어진다.

사막에 한 줄기 바람이 인다. 그러니 살아야겠다! 기어코 살아 남이서 기억하여 기록하고, 영원히 기릴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내 안에 피라미드 하나 오롯이 간직한 채 새로운 길을 나선다.

이집트 카이로라는 도시는 하늘에서 보면 어느 혹성처럼 보인다. 온통 사막 모래가 뒤 덮힌 채 안테나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골목 안에는 주식인 밀빵을 파는 화덕과 노천카페의 진한 이집트 커피 향과 물담배 연기로 몽환적이면서도 활기찬 모습이다. 이방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나일강을 기점으로 해가 뜨는 동쪽에는 사람들의 도시와 시장 등 삶이 자리하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곳에는 죽은 자의 무덤 등 죽음이 자리한다. 우간다의 진자에서 발원한 나일강은 그 가운데를 관통하며 6,400Km를 북으로 흘러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꽃피웠으며 마침내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다로 나아간다.

이런 나일강이 먼 여행을 떠나는 장엄한 물줄기를 바라보며 나도 새로운 여정을 준비한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찾아가듯, 이것은 단지 새로운 길과 희망의 첫걸음일 따름이다!



아부심벨 신전

카이로에서 이집트 남단의 아스완댐이 위치한 아스완으로 국내선을 타고 갔다. 다음날 새벽 여명을 뚫고 세계문화유산인 람세스 2세 석상이 있는 아부심벨 신전으로 향했다. 1970년 아스완댐이 완공되면서 수몰 위기에 처한 것을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인 람세스 2세의 아부심벨 신전과 이집트 최고의 미인으로 일컫는 네파르테리 왕비의 하토르 신전은 그 조각과 벽화가 단연 압권이다. 이집트 최고의 전성기의 웅혼한 기상과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인류문화의 정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모세가 유대인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기'가 일어난다.

단언컨대 아부심벨 신전 유적은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이집트 최고의 유적이자 인류문화 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신전을 순례한 후에 21세기 최고의 대역사라는 아스완댐을 견학했다. 대자연의 질서와 위엄을 인간의 삶과 안락을 위해 변경한 대역사 앞에 가슴 뭉클한 감동과 경외를 느낀다.

아스완 시내로 돌아와 홀로 걸어서 자유여행에 나섰다. 아스완역 근처의 시장에서 어느 서점에 이슬람교의 성전인 〈꾸란(코란)〉 한 권을 구입했다. 아랍어로 꾸란은 '읽어라'라는 뜻이다. 일본의 철학자 사사키 아타루는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란 책에서 "텍스트(경전)를 다시 읽고, 다시 쓰고, 다시 말함으로써 혁명(革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나도 그렇다고 믿는다.

시장의 작은 현지 식당에서 모로코에서 온 여행자와 친구가 되어 현지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처럼 여유있는 저녁과 여행자 친구와의 교유를 통해 행복한 추억과 시간을 함께했다. 그리고 현지 찻집에 둘러앉아 이집트 커피 한 잔과 더불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녁 무렵 나일강 서편으로 해가 지면서 붉은 노을이 참 곱고 아름답고 장엄하기만 하다.

이어 사막의 밤하늘 위로 신화와 전설의 양 별들이 떠오른다. 누군가 사막이 아름다운 건 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던가! 정말이지 밤하늘의 휘황한 별빛의 향연 가운데 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조계종 前 교육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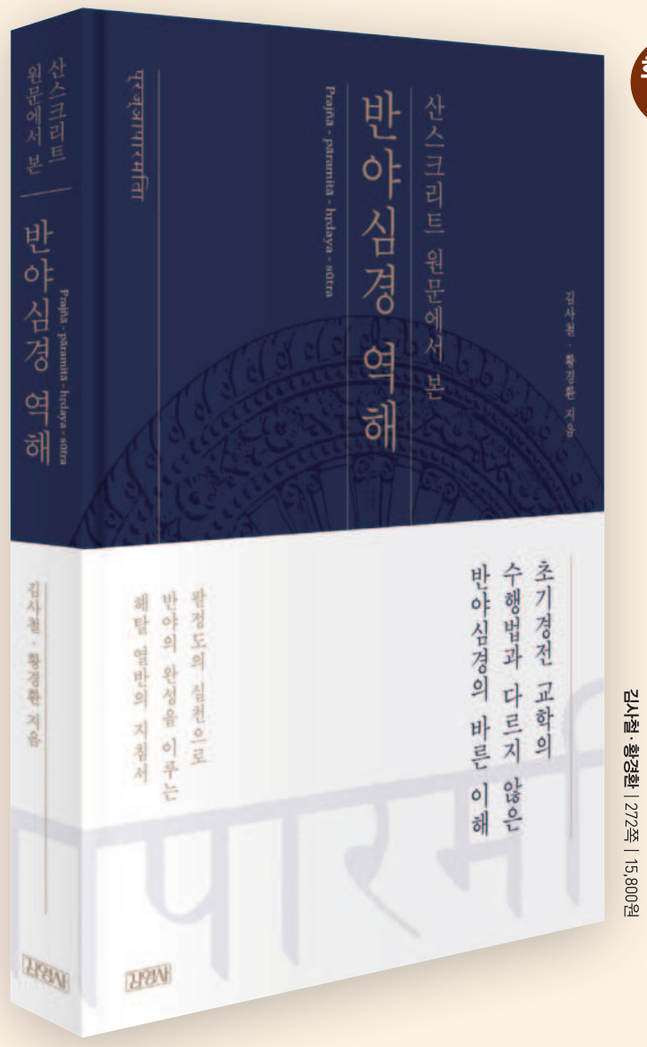


비밀스럽고 난해하다면 《반야심경》이 아니다

초기 경전의 교학 이론과 수행법을 통하여 '공'과 '지혜'의 의미를 새롭게 밝힌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해설이 난무하는 《반야심경》 왜 이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할까?

《반야심경》이 어려운 이유는 한문 자체의 난해함과 한역의 부정확성 때문이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내며, 초기 경전의 수행법을 기반으로 하여 《반야심경》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한다. 《반야심경》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명상 수행과 이를 통한 완전한 깨달음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참신한 시각에서, 초기 경전의 다양한 경문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지혜의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란 계·정·혜 삼학, 즉 팔정도의 실천과 완성임을 명쾌하게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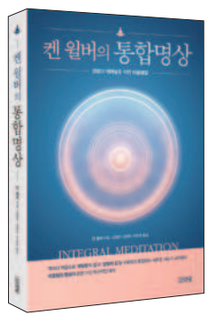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성장의 길 vs 깨달음의 길 통합 마음챙김Integral Mindfulness 안내서

마음챙김 명상에 관한 가장 혁신적인 해석

동양의 '깨달음'과 서양의 '발달 및 진화' 이론을 통합하는 최초의 시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통합이론Integral Theory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식 탐구 기법인 마음챙김을 재해석한 제3의 방법 '통합 마음챙김 명상'을 소개한다.



켄 윌버의 통합명상

켄 윌버 | 김명권·김혜옥·박윤정 옮김 | 352쪽 | 15,800원

앉아만 있는다고 깨칠 수 있는가? 21세기에 최적화된 깨달음의 길, 간화선看話禪

화두를 통해 깨침에 이르는 과정과 원리를 밝히다

간화선 수행의 핵심은 단번에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여 '답만 찾도록 집중'시키는 데 있다. 활구活句와 사구死句의 구분, 의심이 익어서 의정疑情·의단疑團이 되었다가 마침내 화두가 타파되기까지의 수행과 정별 특징과 병통, 해결법 등 간화선의 요체와 구체적인 원리를 쉽고 자세하게 밝혔다.



간화심결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수불 | 284쪽 | 13,800원

금강석 같은 지혜로 분별망상을 자르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공부법

"아침저녁 금강경을 읽으시되,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를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_백성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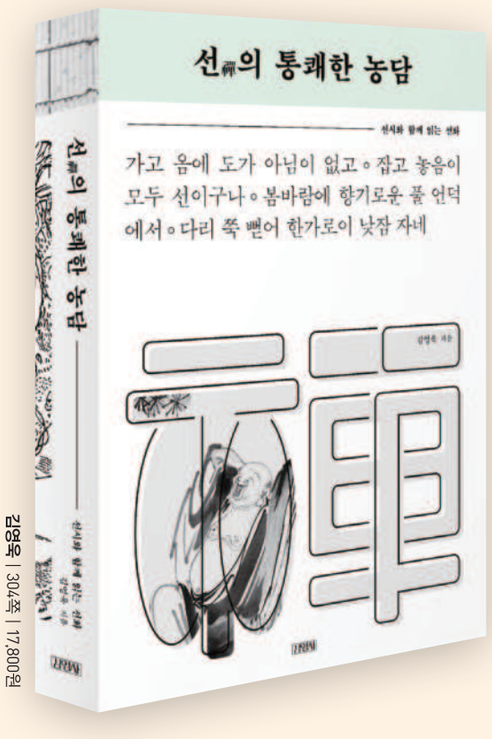
백성욱 박사가 현토를 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저본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본 등 여러 판본을 대조 비교하여 교정한 독송용 금강경. 의미 단위로 토를 달고 띄어쓰기를 하여, 독송하면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전 2권)

한문본, 한글 한문 혼용본 | **김강유** 엮음 | 64쪽 | 9,600원

모든 그림이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말하는 듯했다



김영욱 | 304쪽 | 17,800원

선 시 와 함 께 읽 는 선 화

선禪의 통쾌한 농담

화제의 신간

옛 그림과 옛 노래로 마음공부하다

호쾌한 선線과 농담濃淡으로 풀어낸, 농담弄談 같은 선禪의 통쾌한 가르침

왜 스님은 강에 빠진 사내를 태연하게 보고만 있을까? 왜 스님은 매서운 얼굴로 고양이를 그러쥐고 있을까? 왜 사내는 경전을 박박 찢으며 호기롭게 웃고 있을까? 왜 원숭이들은 물에 비친 달을 향해 손을 뻗고 있을까?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한중일 옛 그림 속 숨은 이야기를 선사들의 시와 함께 흥미롭게 담아냈다. 당신의 마음에 청량한 파문을 일으킬 불교예술 교양서.

★ 선화와 선시에 담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자유자재로 펼쳐 보이면서 우리를 깊고 오묘한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한다. _한자경 ·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저자

★ 대담한 필치로 통쾌감을 선사하는 선화의 아름다움,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선시의 유머가 어우러져 독자에게 깨달음과 감동의 기쁨을 동시에 선사한다. _정여울 ·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저자



김영욱 | 그림을 보며 차담茶談 나누기를 좋아하는 전통미술 연구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미술사 석사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고사화故事畵를 연구하고 있으며, 옛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짧은 글을 틈틈이 쓰고 매만지고 있다.

김영사 TEL : 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현대불교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제 1316 호 B1



2019.11.11
천막결사 입재

公心 · 願力의 1년… '불교' 바꾸다

공심(公心)이 담긴 하나의 원력(願力)이었다. 지난 2019년 2월 백담사 무문관 동안거를 마친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만나는 대중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다 놓아버린 곳에서도,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도 틀림없이 공부가 있을 것이니, 승가 본연의 모습으로 차별없이 정진해보자."

한 명의 원력으로 시작된 상월선원 결사는 천막결사를 거쳐 만행결사까지 장장 1년 동안 이뤄졌다.

'결사' 라는 무거운 단어가 있었지만, 무겁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겨울 위례종교부지의 비닐하우스 천막서 아홉 스님들이 무문관 동안거 정진을 했고, 사부대중은 이곳을 찾아 절과 기도하고 음성공양을 올렸다. 정(靜)을 바탕으로 했지만, 동(動)도 함께했다. 서릿발 같은 날선 정진의 공간에 뜨거운 사부대중의 신심이 어우러졌다.

이듬해 봄 상월선원은 만행결사를 준비했다. 만행의 장소는 인도였다. 인도 부처님 성지 1080km를 걷는 대장정이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고, 한국 순례로 우회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7월 태화산서 예비순례를 진행하며 10월 자비순례를 준비했다. 10월 7~27일 21일간 이뤄진 자비순례에는 69명이 '불교중흥 · 국난극복' 의 원력으로 511km 국토 종주 순례를 완주했다. 코로나19로 엄격한 방역 지침 아래 마스크까지 쓴 악조건 속에서도 순례단은 원력을 되새기며 걷고 걸었다.

이 같은 일련의 상월결사는 수사로 가득한 번지레한 접촉이 아니었다. "중생에게 차별없이 다가가겠다"는 전환의 선언이었다. 결사의 원력에 대중들은 공감했고, 이에 열렬한 호응을 보냈다. 공심과 원력으로 시작된 상월결사의 1년은 미래불교로의 변화를 화두로 던진 시간이었다. 변화는 시작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0.10.27
자비순례 회향

부다가야 꿈꾸며 중생에게 나아가다

불교 변화 여정 상월결사 1주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부다가야가 될 것입니다."

지도에도 보이지 않은 황량한 벌판에 9명 스님들의 결연한 서원이 울려 퍼졌다.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달을 벗 삼아 정진하겠다는 '상월선원 천막결사' 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천막결사에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상월선원 회주)을 비롯해 무연 스님(선원장), 진각 스님(입승), 성곡 스님(한주), 호산 스님(지객), 재현 스님(지전), 심우 스님(정통), 도림 스님(시자), 인산 스님(다각) 등이 참여했다.

90일, 치열했던 수행 여정

'천막결사' 는 조계종 총무원장 퇴임 이후 2차례 백담사 무문관에서 동안거 정진을 했던 자승 스님의 "승가 본연의 자세로 안거 한철이라도 치열하게 정진해보자"는 제안으로 시작됐다.

본래 자승 스님의 처음 계획은 서울역에서 혼자 노숙 정진을 하며, 그곳을 배회하는 노숙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위의 만류로 대중들이 꾸려졌고, 장소도 다시 논의됐다. 결국, 최종적으로 위례신도시 법당 건립 부지에서 정진하기로 결정됐다.

9명의 스님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공양 △옷 한 벌만 허용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 · 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하고, 천막 벗어나지 않기 △묵언 등을 골자로 한 청규를 정하고 스스로를 가둔 채 수행에 매진했다.

극한 환경에서의 수행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진 대중의 정진력은 날카로워져 갔다. 한 끼 공양마저 마다하고 곡기를 끊고, 두부 4쪽 · 방울토마토 3쪽 · 나물무침 2젓가락만 섭취하는 스님도 있었다.

70여 일이 지날 즈음에는 대중 스님 중 한 명이 의식을 잃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출동했지만, 정신을 차린 스님은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다시 정진에 들어가기도 했다.

사부대중 함께 기도 · 외호

이 같은 아홉 대중 스님들의 정진력은 결사의 원동력이었고, 이는 대중들을 감화시켰다. 지난해 11월 11일 입재 이후 한 달여 만에 5만여 사부대중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결사에 동참했다. 회향까지 10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험관에서 무문관 수행을 한 불자들도 110명에 달했다.

자원봉사와 보시도 위례천막결사를 이끌었다. 용인 대덕사 명선다례원은 매일 자비로 다과 물품을 구입해 선원을 찾은 대중에게 보시했고, 봉은사 사찰음식팀은 봉국사 공양간을 빌려 대중공양을 준비했다. 화장실 · 법당 청소 봉사자들도 매일 줄을 이었다.

'상월선원' 유튜브 채널과 밴드 개설 · 운영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대의 결사 모습이었으며, 이는 1년 간 이어지는 결사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창구가 됐다.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회향 후에도 그 잔향은 오래 이어졌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진대중은 회향 당시 받은 공양금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위해 마스크 1만장과 손세정제 1000개를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치열한 결사 일정은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스님' 으로 만들어져 5월 27일부터 한달여 간 전국 극장서 상영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극장가가 셧다운되는 상황이었지만, 2만2000여 명이 '아홉스님' 을 극장서 만났다.

인도 만행결사, 한국 순례 우회

안거를 마쳤으면 만행이 따르는 법. 상월선원은 지난 5월 21일 '만행결사' 의 계획을 언론에 공개했다. 11월 17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 간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성지 녹야원 · 부다가야 · 룸비니 등을 1080km에 달하는 거리를 도보 순례하는 대장정이었다.

"치열하게 정진하자" 원력 세우고
지난해 11월 11일 천막 결사 입재
9명 스님 정진에 대중 응원 고조

인도 만행결사, 코로나로 한국서
예비 순례 거쳐 10월에 자비순례
함께 걸으며 공감한 '無遮의 공간'

45일 간 하루에 평균 30km를 걸어서 이동하는 강행군으로 하루 10시간 가량을 오롯이 걸으며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체현하는 것이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불교계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인도와 날씨가 비슷했던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공주 태화산 일대에서 예비순례도 진행됐다. 장마철 폭우에도 대중들은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함께 걷고 걸었다. '사부대중이 함께 한다' 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다가왔다.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됐고, 인도로의 출국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상월선원 만행결사 대중은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불교중흥 · 국난극복' 을 발원하며 자비순례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 동화사에서 출발해 서울 봉은사에 도착하는 자비순례도 총 511km의 대장정이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에도 청규는 제정 · 적용됐다. 대중은 △행선시 스님은 승복과 대가사 수한다 △행선시 묵언한다 △참가자는 염송, 화두, 진언, 염불 등 수행을 한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다 △행선시 휴대전화 금지, 야영지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한다 등을 청규 조항으로 만들고 이를 지키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발생을 막기 위해 아침 출발 전과 점심공양, 저녁 도착 후 총 3차례 걸쳐 발열체크를 하고 각각의 온도를 기재하기로 했다. 체온 기준도 37.5도인 정부방역 지침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37도 이상시 의료팀이 즉각 격리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1인 1텐트와 함께 매일 텐트 소독도 진행하며 공양도 도시락으로 해결하여 대중운집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국난극복 발원하며 한걸음

"사회의 평온과 화합을 환희 밝히는 서원이 선명하기에 불은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걷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행원의 과정이요, 한 걸음마다 의지의 실천으로 삼겠나이다."

국난 극복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대중이 순례 여정을 시작하며 부처님께 올린 서원이다. 순례 대중은 10월 7일 동화사서 입재법회를 열고 대장정의 첫발을 디뎠다. 이날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직접 증명법사로 참여해 "자비순례에 동참하는 모든 대중이 일거수 일투족에 화두가 가득하길 바란다. 깨달음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순례단은 대구 동화사 입재식 후 132km를 걸어 10월 11일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서 아도화상 전에 헌향하고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를 전래한 아도화상과 같이 불교중흥을 위한 걸음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했으며, 10월 12일에는 불교 성보 지킴과 환경운동의 상징이 된 의성 낙단보 마애불에서 법회를 갖기도 했다.

11일차인 10월 17일에는 문경새재를 넘어 반살림을 고했다. 문경새재는 입재식 후 총 368km를 걸은 구간으로 순례의 반환점이자 가장 고된 길이기도 했다. 해발 548m의 고갯길을 넘으며 순례단은 하나가 됐다.

14일차인 10월 20일 순례단은 국토의 중앙인 충주 구간을 지났으며, 10월 26일 순례단은 구리토평 가족캠핑장을 출발해 구리한강공원을 지나 서울로 진입해 봉은사에서 자자의 시간을 가졌다. 27일에는 봉은사와 상월선원를 왕복하며, 회향했다.

순례단은 매일 수십km를 걷느라 힘든 와중에도 한국불교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10월 15일에는 문경 STX리조트에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를 주제로 교계 안팎의 학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10월 23일에는 양평 소노문리조트에서 2차 대중공사가 열렸다.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렸다.

함께 먹고 걸으며 소통 · 공감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82명의 순례단 뿐만 아니라 공양팀, 운영팀, 상황팀, 자원봉사팀, 의료팀 등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前 국회 정각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각계 인사들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등 학계 인사, 불자들과 지역민들의 동참도 이어졌다.

또 지역사찰들의 순례단을 향한 봉사는 한국불교가 큰 원력 하에 결집할 수 있는 힘을 느끼는 계기였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대구 동화사를 비롯한 지역 교구본사 대사찰 뿐만 아니라 작은 말사에서도 십시일반 할 수 있는대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해원 동국대 일산병원장을 비롯해 동국대 병원 연우회 등은 의료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장기간의 노숙을 동반한 순례인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이들도 있었고, 부상자도 나왔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는 이는 없었다. 걷지 못하는 이는 차량을 타고, 뛰어야만 하는 진행과 취재팀들은 자전거를 타고 순례에 함께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봉은사에서 이뤄진 자자회에서 " '차별없음' 이 상월결사를 시작한 이유"라고 했다. 함께 먹고, 자고, 걸으며 같은 원력을 공유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무차(無遮)의 공간' 으로 상월결사는 거듭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불교는 상월결사 전과 후로 그 모습이 변화할 것이라고 진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비순례는 회향했지만, 인도로의 만행은 남았다. 상월결사는 '현재진행형' 이다.

숫자로 본 상월결사 1주년



9명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진 스님들



110명
상원선원 무문관 체험 참여 인원



22,330명
영화 '아홉스님' 관객수

511km
만행결사 자비순례 이동거리



69명
만행결사 자비순례 완주 인원



3008명
상월선원 유튜브 구독자(11월6일현재)

100,000여 명
천막결사 기도 참여 인원(추정)



217,774회
상월선원 유튜브 총 조회수(11월6일현재)

"원력 모아 불교중흥… 차별없는 세상 이끌자"

회주 자승 스님이 전한 상월선원 결사의 의미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종단 종무행정을 진두지휘했던 자승 스님은 이제는 '상월선원 회주' 로서 상월선원 천막결사 · 만행결사의 중심에 있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퇴임 후 공식 발언들은 최대한 자제해왔다. 다만, 상월선원 만행결사 예비 · 자비순례의 자자회에서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들을 대중에게 전했다.

상월결사가 시작된 이래 자승 스님이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중과 함께 이야기한 것은 지난 7월 28일 공주 태화산 예비순례 첫 일정을 소화한 직후 가진 대중과의 만남이 처음이다. 이날 자승 스님은 "불교중흥을 위해 걷는다"는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를 통해 내적으로는 어려운 역경을 수행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외적으로는 침체된 불교의 새로운 신심과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조그만 토대라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결사라는 인식을 함께 가져주길 바란다. 신심과 원력으로 걷자"고 당부했다.

예비순례 회향을 앞둔 7월 30일 진행된 자자회서는 자승 스님은 불교중흥에 대한 간절함과 원력 결집을 역설했다.

자승 스님은 "자자를 시작하기 전 조계사에서 피자 대중공양을 올렸다. 이 피자를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8개월 전 상월선원 안에서 먹었던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때는 피자가 정말 맛있어서 퍽퍽한 끝 부분의 밀가루가 단맛이 날 때까지 꼭꼭 씹었다. 오늘 보니 파자 토핑이 올려진 부분만 먹는 것을 봤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피자가 아무리 맛있어도 다 먹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간절하지 않으면 원력과 신심이 나오

간절함서 나오는 원력이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어

차별없는 세상과 불교가
미래불교가 지향할 지점
'차별없음' 결사 시작 이유

지 않는다"고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중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된다. 다른 일을 하니 중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각자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임하면 중흥이라는 말이 굳이 왜 필요하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선방 수좌가 엉덩이가 썩어 문드러져도 도를 깨치겠단 원력이 있고, 기도하는 스님이 목젖이 터져도 내 기도를 듣는 이가 기도성취를 하게 해주겠다는 원력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10월 26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서 자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는 차별없는 불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진=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은 불교가 살기 위해서는 절실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포교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으면 차라리 길에서 죽겠다 하면 중흥 불사라는 말을 꺼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원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된 자비순례에서는 인도에서 이뤄질 만행결사 순례와 같이 풍찬노숙으로 엄격하게 진행됐다.

회향을 하루 앞둔 10월 26일 서울 봉은사에 입성한 자승 스님은 자자회에서 '차별없음' 을 화두로 내놨다. 먼저, 자승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두두물물 개유불성(頭頭物物 皆有佛性)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등 3가지 키워드를 순례 대중에게 제시하며, 공통어를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중들은 '무차 평등' ,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 ,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등의 답을 내놨다. 하지만, 모두 정답은 아니었다. 자승 스님이 내놓은 정답은 '차별 없음' 이었다.

자승 스님에 따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은 개개인 모두 존귀하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으며, '두두물물 개유불성' 은 모든 생명에는 차별없이 불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 경제 ·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승 스님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과 화두는 '차별 없음' 에서 출발하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불교의 미래는 차별없는 세상을 사부대중이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는 사부대중이 '차별 없음' 을 보여주려 했다"면서 "천막 안팎으로 차별없이 수행하고 기도했다. 만행에 올라서는 사부대중이 같은 곳에서 자고 같은 것을 먹었으며, 같은 길을 함께 걸었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차별없는 사부대중' 은 불교 발전의 초석임을 강조했다. "인도의 불교는 이제 흔적만 남았다. 방일하면 한국불교도 역사로만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 스님은 "종단이 해코지를 당할 때 이를 지키는 동력은 '차별없는 사부대중' 에 있다. 사부대중이 차별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을 외호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월결사를 진행했다"며 "21일 동안 이어진 원력의 장정이 한국불교 미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승속 · 종교 · 나이 떠난 '무차' 정신 알리다

키워드로 본 상월결사

상월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결사란 평가를 받고 있다. 출재가가 함께 하는 사부대중결사였고 세속을 멀리한 산중이 아니라 도심, 그리고 세간의 한 중심에서 생겨난 야단법석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 상월결사를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 조명해 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1일간 동고동락한 순례단이 봉은사에서 자비순례 회향을 앞두고 찍은 사진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20여일간 착용한 마스크를 잠시 벗은 대중들의 얼굴에 환희심이 비친다. 상월결사에 함께 참여한 모든 대중들은 차별없는 도반으로 결사정신의 발현을 위해 매진했다.

이판사판 '한판' 결사

상월결사는 불교 내부적으로는 유례없는 사판 스님들과 이판 스님들의 이른바 '한판' 결사로 진행됐다.

먼저 상월선원 천막결사에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 무연, 호산, 재현, 심우, 진각, 도림, 인산 스님 등 9명의 대중 스님들이 무문관 정진에 들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사판 스님인 자승 스님이 제방선원의 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는 것 만으로도 불교계에서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총도감 혜일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천막결사 당시에 외호대중으로 참여했다. 이는 그동안 산중 수행으로만 평가받던 안거수행을 일선 사찰행정을 담당하는 스님들이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포교전법으로도 이어지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태화산 예비순례와 만행결사 자비순례로도 이어졌다. 전국의 스님들이 사판 이판을 불문하고 신청을 했으며 많은 지원으로 이른바 인도 만행결사를 앞둔 '선발' 성격을 띠기도 했다. 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사판승으로 젊어서 지녔던 이판승으로서의 꿈을 이루는 계기였다고도 했다.

사부대중 '무차' 결사

태화산 예비순례와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정진하는 사부대중의 '무차' 결사로 이어졌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무문관 옆 일일체험 공간에서 재가불자들이 함께 수행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주는 스님들의 정진이었다. 하지만 태화산 순례와 자비순례에서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똑같이 풍찬노숙하며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펼쳐졌다. 비록 복장과 모습은 달랐지만 순례단에서 대우는 같았으며, 모두가 하나의 수행자였다. 가톨릭 신자부터 70세가 넘는 고령자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까지 한마음으로 순례에 동참했다. 길을 걷다 힘들 때면 재가불자들은 앞선 스님들을 보고 힘을 내고, 스님들은 또 재가불자들의 모습을 보며 힘을 냈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태화산 순례와 추위 속에서 진행된 자비순례 모두 승속과 나이, 종교까지도 떠난 차별없는 대중의 '한마음'이 있었기에 모두가 순례를 성료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 '함께' 결사

흔히들 결사라고 하면 결사에 참여한 이들만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상월결사는 결사 외호대중의 역할과 정진 또한 지속적으로 주목받은 결사다. 천막결사 당시 추운 겨울 스님들의 정진을 돕고 야단법석을 열어 신심증장의 기회를 제공한 외호대중은 태화산 예비순례와 자비순례에서 지원단으로 정식 구성돼 활동했다. 박기련 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운영팀(팀장 이상종)과 상황팀(팀장 윤승헌), 자원봉사 · 공양팀(팀장 장영욱), 의료팀(팀장 김명숙) 등 총 4개 팀으로 나뉘었고, 순례단의 안전과 순례 관련 전반적인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맡았다. 비록 순례에 직접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뒷바라지를 통해 순례 동참보다 더한 공덕을 쌓았다. 이러한 외호대중의 역할은 순례 과정에서 십시일반 순례를 지원한 이들로 확장됐다. 공양물을 보내온 일선사찰부터 길안내 등 노력봉사로 결사에 동참한 포교사단과 경찰불자회 등의 모습은 단순히 수행만이 결사 참여가 아니란 것을 보여줬다.

좌선 · 행선 '행주좌와' 결사

상월결사는 앉아서 참구하는 선수행이 걷고 자고 먹는 등 행주좌와 모든 순간으로 전환되는 결사임을 알리는 계기였다. 그동안 수행정진이라고 하면 선방에서의 화두참구라는 인식은 상월결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알게 했다.

결사에 참여한 순례대중은 걸으며 염불하고, 누워서 화두를 참구하며, 저잣거리에 나서 만행을, 삶의 현장을 돌아보며 자비실천을 행했다.

특히 자비순례 때는 순례단의 손에는 모두 단주가 들려있었다.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씩 단주알을 돌리며 각자 생각한 화두에 빠져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천막결사 이후 아홉 스님들은 코로나 기간 급감한 헌혈 상황을 감안해 헌혈에 동참하고, 회향에 답도한 보시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복지관에 기부해 결사에서 수행정진과 자비실천이 둘이 아님을 직접 보였다.

유튜브 '디지털' 결사

21세기에 펼쳐지는 결사답게 상월결사는 포교와 전법에까지 영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이다. 유튜브 채널인 '상월선원'은 실시간으로 순례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창구가 됐다.

홍보담당인 정오 스님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가 하면 각 언론사들의 다큐 등 유튜브 영상도 상월선원 채널에서 공유됐다. 천막결사 당시 300여명 수준이었던 상월선원 유튜브 채널은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로 3000명이 넘는 구독자와 콘텐츠 당 2000~1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자랑했다.

여기에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영화 '아홉스님'으로도 제작돼 5월 27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국내 유수언론 또한 상월결사의 여러 면모를 보도하고 관심을 보였다. 디지털, 미디어 결사는 스님들의 수행정진에 의한 감동이 그 현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도 확장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結社 새 패러다임 제시…화두 던졌다"

불교지성들이 본 상월결사

상월결사가 제시하고 실천한 새로운 결사방식은 매순간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한국불교에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됐다. 이에 지난 1년 간 불교학자 등 지성들이 저마다 조명한 상월선원 결사의 의미 가운데 눈에 띄는 발언들을 정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 한 획 긋는 사건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상월선원은 탈종교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이 시대 불교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상월선원 천막결사에는 고려시대 지눌의 수선사 결사 정신이 온축돼 있으며, 만행결사 역시 붓다가 강조한 순례의 정신과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한국불교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불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승려의 문제일 수 있다"며 "지눌의 개창 이후 약 170여년 만에 송광사는 동방제일도량이라는 최고 존칭으로 불리게 됐다. 이는 지눌이 추구한 수행과 청정성의 회복이 고려불교에 강력한 족적을 남겼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님은 "천막결사라는 최소를 통한 청정과 무문관이라는 치열한 수행은 지눌과 지공을 결합하는 최상의 가치를 도심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현대불교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승가 · 재가 상호보완구조 제시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상월결사에 대해 "'앉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로,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로, 소극적불교에서 적극적불교로 변화시켰다"며 "'미래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라는 상월결사의 신념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불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황 교수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대해 "승가와 재가가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국불교 재가자는 큰 사찰의 선원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출가자는 수행을 위해 안거 기간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으나,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이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숲속에서 고립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모두가 함께하며 수행하는 야단법석을 지향한 것 자체가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며,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수행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지향하는 밝고 건강한 수행문화"라고 평가했다.

법고창신의 결사운동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상월결사가 회주 자승 스님이 지난 2011년 총무원장 재직 당시 시행했던 '자성과 쇄신결사 운동'에서부터 태동됐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자성과 쇄신결사는 당시 불교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상월결사 역시 한국불교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고착화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 교수는 "상월결사가 역대 전통결사와 같은 배경을 하지만 그 방법을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며 "이는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의 결사운동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평화 · 통일순례로 확장 제안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월결사의 확장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결사가 승가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상월결사는 대중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는 출 · 재가가 함께하는 결사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향후 통일 · 평화순례로 확장되는 등 현실을 반영해 신계사와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를 순례하는 금강산 만행결사와 고성서 파주까지 250km에 이르는 DMZ평화순례를 제안했다.

수행문화 흐름 바꾼 계기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상월선원은 한국불교 흐름을 바꾸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는 부처님 안거이고, 만행결사는 안거를 마치고 수행자들이 유행하며 전법하고 수행하는 모습에 기인한다"며 "나아가 상월결사는 4차산업혁명시대 불교가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할지를 계속 고민하게 해 실질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법순례자 혜초 스님 연상

이병두 前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은 "상월선원 결사는 외부를 탓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원력을 낸 일대 사건"이라며 "불교의 흐름을 바꾸려는 이번 결사가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자기혁명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태우기도 세상을 밝히기도 한다"고 강조한 이 前 종무관은 "자비순례의 작은 불씨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출발할 때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500km의 대장정을 마치면 대다수가 같은 생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며 "동참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도반과 문중, 종단, 한국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해본다"고 강조했다.

사부대중 함께한 '진짜 결사'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이번 만행결사를 지켜보며 개인적으로 〈왕오천축국전〉을 쓴 구법승 혜초 스님과 〈삼국유사〉를 집필자 일연 스님을 떠올렸다. 두 스님 모두 구법 순례를 통해 세상을 접했고 이를 저서로 기술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불교중흥, 국난극복을 위한 자비순례도 일종의 구법행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 변화 모여 한국불교로 확산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결사(結社)는 '동일한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성취하는 데 동참하는 것' 혹은 '동일한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 모인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말한다"며 "그렇게 보면 불교 집안의 결사에 대중결사가 아닌 것이 또 어디에 있으며, 대중이 동참하지 않고서 결사의 원력을 성취한 경우 또한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상월선원은 그야말로 사부대중 모두가 진심으로 함께했던 결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석 교수는 "상월결사는 '나는 불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했으며, 이 같은 고민들은 개인의 발심과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상월결사를 바라보는 불자들이 이를 느끼고 변화한다면 궁극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으로 본 상월결사

2019년 11월 11일 위례 상월선원서 천막결사에 들어간 9명 스님들의 정진과 2020년 2월 7일 회향, 그리고 2020년 7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태화산 만행결사 예비순례. 2020년 10월 7일 만행결사 자비순례 입재와 10월 27일 회향. 인도 만행결사를 앞두고 상월결사는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한 대장정이었다. 수백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울고 웃으며 같은 화두로 매진한 1년 여의 기간을 사진으로 담아보았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2월 7일 상월선원 천막결사 해제 후 회주 자승 스님(조계종 前 총무원장)이 천막 무문관을 나서고 있다. 무문관 청규대로 안거 기간 동안 삭발과 면도를 하지 않아 덥수룩하고 수척했지만, 맑은 기운이 넘쳤다.

'불교 중흥' 화두로 매진한 1년의 기록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참가 대중들이 7월 27일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예비순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천막 무문관 담장에 소원등을 다는 불자들.


10월 7일 대구 동화사서 진행된 만행결사 자비순례 입재식.


10월 7일 만행결사 자비순례 입재식 후 순례를 시작하는 순례단.


태화산 예비순례에서 무더위와 폭우에도 불구하고 행선을 진행하는 순례단의 모습. 하루에 35km를 넘게 걷는 강행군이었다.


태화산 예비순례 입재식에서 발원하는 사부대중.